



www.donga.ac.kr

동아는 지금

2014

Newsletter

Vol. **104**



*주소 변경 및 신규 구독 신청은 대외협력처(051-200-6042~3)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아대학교
DONG-A UNIVERSITY

승학캠퍼스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구덕캠퍼스 (602-714) 부산광역시 서구 대신공원로 32
부민캠퍼스 (602-760)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225



동아, 꽃 피우다 Dong-A, Blossom

글로벌화, 다양성과 조화, 소통의 시대인 21세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요구합니다.
동아대학교에게 있어 시대의 요구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동아인을 키워나가기 위해
동아는 긴 호흡과 큰 걸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동아인의 자부심으로
동아의 아름다운 미래를 꽃 피우겠습니다.

동아대학교 소식지 **동아는지금**

2014년 2월(통권 제104호)

발행일 2014년 2월
발행인 권오창
발행처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T. 051)200-6042~3 **F.** 051)200-6015
fund.donga.ac.kr

디자인 DAEHOON COMMUNICATION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621번길 12 2F
T. 051)898-0330 **F.** 051)894-0016

Contents

동아 핫 이슈

- 04 대학발전기획추진단 2기 출범
- 08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린라이트를 켜다
- 10 대학과 기업, 협력의 장場이 열리다
- 12 고려시대의 향기, 석당박물관에 스미다

동아인을 만나다

- 14 '신뢰 경영'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열정과 도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으로
- 류진수 (주)대흥알앤티 회장
- 16 MICE라는 블루오션을 향해 닳을 올리다
- 이봉순 (주)리컨벤션 대표
- 18 스승의 선물, 열정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다
- 박은경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 20 아름다운 동아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씨앗을 뿌리다
- 엄기섭 한진물산(주) 대표이사
- 22 골프CEO 최고위자 과정

쉬어가는 페이지

- 23 함정임 교수가 전하는 불멸의 저자들
'알베르 카뮈'

캠퍼스 라이프

- 24 특별한 꿈이 있다면 특별한 행동을 해라
- 26 '증강현실' 기술, 그 중심엔 '서머너즈'가 있다
- 28 유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는 곳,
동아대에서 그들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 30 우수동아리 콘테스트 수상팀,
<미카>와 <팁사>를 만나다
- 32 우리 대학 캠퍼스 어디까지 가봤니?!
- 34 900대 3 산업디자인학과,
전 세계와 경쟁한다
- 36 임벽과 하나가 된 나는 클라이머다!

쉬어가는 페이지

- 37 강호진 작가의 '한 페이지 카툰'
- 38 동아뉴스
- 43 사람, 기술, 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 동아비즈니스포럼
- 44 후원의 집 안내
- 45 후원의 집을 가다
- 동경초밥
- 46 발전기금 기부스토리
- 48 발전기금 납부자 명단



우리 대학의 상징 - 목련

우리 대학을 상징하는 꽃, 목련은 꽃샘추위를 이겨내고 꽃
망울을 터트리는 봄의 전령사다. 추운 겨울을 이겨낸 목련
은 동아인의 강인함을 상징하고, 목련의 부드러움과 온화로
움은 동아의 공동체 정신에 흐르는 힘의 동력을 나타낸다.



대학발전기획추진단 2기 출범

미래 성장 동력이 될 과제 추진에 초점
대학의 모든 역량 집중...위기를 기회로 만든다

대학의 위기, 그 해법은

최근 교육부는 대학평가를 통해 2022년까지 입학정원 16만 명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대학구조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대학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낮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는 정원감축은 물론, 재정지원에 있어 차등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학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면서 지방대학의 상당수가 적지 않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동아대 권오창 총장은 지난 2012년 9월 '대학발전기획추진단'을 출범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지난 34년간 본교 교수와 부총장, 법인 이사 등을 역임하며 학교의 안팎 사정에 능통했던 권 총장은 학내에서도 구조조정(Down-sizing)과 같은 기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취임 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8개 분과(학사·학제, 행정, 교수역량, 학생, 재정, 캠퍼스 조성, 국제화, 산학협력)로 구성된 대학발전기획추진단 1기를 결성, 대학의 근본적인 체질개선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변화의 첫 걸음, '미래지향적 학제개편·캠퍼스 마스터 플랜'

권 총장은 대학발전기획추진단 1기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중장기 과제를 발굴하는 데 주력했다. 중점 과제인 '미래지향적 학제 개편'은 대학 및 학과 간의 물리적 결합이 아닌, 개별 학과의 특색을 고려한 화학적 결합으로 창조 경제의 키워드인 '통섭(統攝)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기존 10개 단과대학과 2개 학부, 62개 학과, 4개 전공의 학제를 2015학년도부터 11개 단과대학과 1개 학부, 58개 학과, 1개 전공으로 개편하여 사회수요 및 시대상을 반영한 실용지향적인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개편된 학제에 맞춰 캠퍼스 또한 새롭게 바뀐다. 특히 2018년에 완료될 '캠퍼스 마스터플랜'은 우리 대학의 성장을 가속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적으로는 노후화된 시설의 단계적인 리모델링을 통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적으로는 교사시설을 확충해 보다 나은 교육 환경을 만든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승학캠퍼스는 인문과학, 공학, 예·체능, 자연 및 생명자원과학 관련 학과를 배치해 연구 및 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예술대학의 이미지와 자연환경의 조화를 추구하는 연구 중심 공원형 캠퍼스로 육성한다. ▲구덕캠퍼스는 편백림의 자연치유적 이미지와 우리 대학 의료원 및 의과대학을 결합해 메디컬 중심의 휴식·치유형 캠퍼스로 조성한다. ▲부민캠퍼스는 현재 배치돼 있는 국제학, 법학, 경영학, 사회학의 특색을 고려해 국제교류 중심 기능을 확대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하는 도시·문화형 캠퍼스로 조성한다. ▲보배캠퍼스는 R&D 관련 기관을 입주시켜 산학융합 중심의 미래형 캠퍼스로 구성할 예정이다.

발전의 가속화, '대학발전기획추진단 2기' 출범

지난해 9월, 첫 임기를 마친 대학발전기획추진단 1기에 이어 한석정 부총장과 교원 27명, 직원 27명으로 구성된 2기가 출범했다. 기존의 8개 분과에서 7개 분과(재정·국제화·캠퍼스조성 분과 제외 대학원·경영개선 분과 신설)로 조정된 2기는, 1기가 세운 중점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한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대학발전기획추진단 2기, 각 분과장 인터뷰)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01 동아대 대학발전기획추진단 전체회의 모습
02 연구중심 공원형 캠퍼스로 거듭날 승학캠퍼스 조감도



교육혁신분과_이상진 교수



대학원분과_이재열 교수



행정분과_한세억 교수



산학협력분과_이진우 교수

대학발전기획추진단 2기, 각 분과장 인터뷰



교수역량분과_김재현 교수



학제분과_진병래 교수



경영개선분과_이상완 교수

교육혁신분과

이상진 위원장 | 건축학과 교수

“대학특성화 사업 추진,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21세기 인재상 정립, 명확한 교육목표설정 및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추진내용

- 특성화 분야와 학과의 발굴 및 육성
- 동아대학교 21세기 인재상 정립
- 교육성과와 질 향상을 위한 전략 수립
- 지속적인 교육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 및 관리를 위한 조직체계 구축

대학원분과

이재열 위원장 | 신소재물리학과 교수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반 관리시스템 구축, 대학원 구조 개선의 틀 마련”

추진내용

-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 학과평가 제도 도입
- 장학 및 지원 제도 개선
- 학위 및 학사 관리제도 개선
- 일반대학원 및 특수·전문대학원 구조개선

행정분과

한세억 위원장 | 행정학과 교수

“직원 행정역량평가시스템 개편, 아이디어를 자극하는 창의적이고 신바람 나는 조직문화 정착”

추진내용

- 행정역량강화 및 직원성과평가 시스템 구축
- 온라인 커뮤니티 '동아미소(美蔬)' 활성화
- 창의성 촉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

산학협력분과

이진우 위원장 | 생명공학과 교수

“산학협력 친화형의 대학체제 개편, 동남권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산학협력 중심대학으로 도약”

추진내용

- 산학협력 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강화
- 창업교육 활성화 및 창업지원 현실화
- 현장실습 및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강화
- 취업연계형 특화교육 강화

교수역량분과

김재현 위원장 |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적정 교원 수 산정 위한 교원 장기 충원계획 수립, 2014학년도부터 신입교수 차등 성과급 실시”

추진내용

- 교원 충원계획(장기) 수립
- 신입교원 차등 성과급 실시
- 교원 트랙제 실시

학제분과

진병래 위원장 | 응용생물공학과 교수

“우리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특성화 방향에 맞춘 학제 개편과 정원 조정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

추진내용

- 학생 정원 조정
- 특성화 중심의 학제 개편
- 대외 경쟁력 중심의 학제 개편

경영개선분과

이상완 위원장 | 경영학과 교수

“예산의 효율적 집행, 정원 조정에 따른 장기 자금운용 계획 수립”

추진내용

- 예산의 효율적 집행
- 자금운용 계획(장기) 수립
- 수익구조 개선

Interview



우수 외국인 유학생 유치, 그린라이트를 켜다.
**동아대 교육부 지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인증기관 선정**

글 | 배동고 대외협력처 홍보팀 dgbae@dau.ac.kr

세계적으로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동아대가 교육부 지정 외국인학생 유치·관리 인증기관 (IEQAS : International Education Quality Assurance System)으로 선정된 것이다. 지역 대학 최초 인증까지 이뤄낸 동아대, 그 우수한 유치·관리 시스템을 들여다봤다.



**부산지역 최초 인증,
평가요소 전반에 걸쳐 우수 평가받아**

한류문화가 인기를 끌면서 2004년 기준 외국인 유학생 수가 1만 6,000명에서 2014년 8만 7,000명으로 5배 가량 늘어났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유학생 관리의 모범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2011년부터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대학'을 선정하고 있으며, 동아대는 2014년 1월 부산지역 최초로 인증을 받았다.

동아대는 학생 선발 단계서부터 입학 후 졸업까지 원스톱으로 유학생을 관리하고 있다. 입학 시 외국인 유학생들의 조기 적응을 위해 한국어연수 단계에서는 글로벌 멘토를 1:1로 매칭하여 한국 생활 적응 및 어학교육을 돕고 있다. 학부 과정 진학 후에는 학습튜터를 1:1로 매칭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전공학습 지원을 하고 있다. 또한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를 돕고, 수업 능력 강화를 위해 토픽(TOPK : 한국어능력시험) 준비반과 글쓰기 교실 등을 개설해 재학 기간 중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토픽은 1년간 집중 교육을 통해 4급 이상 학생 수가 전년도에 비해 3배 이상(30.2%) 늘어나 타 대

학에 비해 높은 수치를 나타냈으며, 중도 탈락을 역시 지역 대학 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역량 인증,
국내외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

국제교류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전원에 대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학생 진로지도반 운영 및 지도교수제, 인턴제도, 취업박람회 참가, 취업지원실 내 외국인 유학생반 편성 등으로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의 진로 설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중국 서안 한국영사관, 삼성전자 협력업체 등 한국 기관과 기업에 졸업생의 진출이 늘어나면서 우수한 관리 시스템을 입증하고 있다.

한편, 이번 인증은 2014년 3월부터 3년간 인증 결과가 국내외로 공개되어, 외국인 유학생이 대학 선택 시 공신력 있는 정보로 활용 된다. 또,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출입국심사가 완화되고 향후 GKS(Global Korea Scholarship, 우수 교환학생 지원사업)지원 사업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 받게 된다.

동아대 국제교류관 조감도, 내년 2월 국제교류관이 완공되면 외국인 유치 등 국제교류 역량이 한 단계 더 올라 설 것으로 기대된다.



2013 DA-LINC FAIR

2013.12.3(화) 11am-8pm
동아대학교 체육관 / 교수회관



대학과 기업, 협력의 장場이 열린다

동아대 LINC사업단,
‘2013 DA-LINC FAIR’ 개최

채용박람회 · 전시회 · 산학협력협의회 등 다양한 행사 열려
LINC사업단 이미지 제고 및 산-학-연-관 공동 협력체계 구축



산학협력은 대학과 기업이 하나가 되어 대학의 경쟁력을 키우고 지역 산업의 뿌리를 튼실하게 하는 미래지향적인 힘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학-기업 간 산학협력을 통해 대학교육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학과 지역산업의 공생발전을 견인하고자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이하 LINC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동아대학교는 지난 2012년 4월 LINC사업단(단장 이진우)으로 선정돼 글로벌(Global) 산학협력을 통한 세부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 승학캠퍼스 체육관과 교수회관에서 LINC사업단의 성과를 선보이는 ‘2013 DA-LINC FAIR’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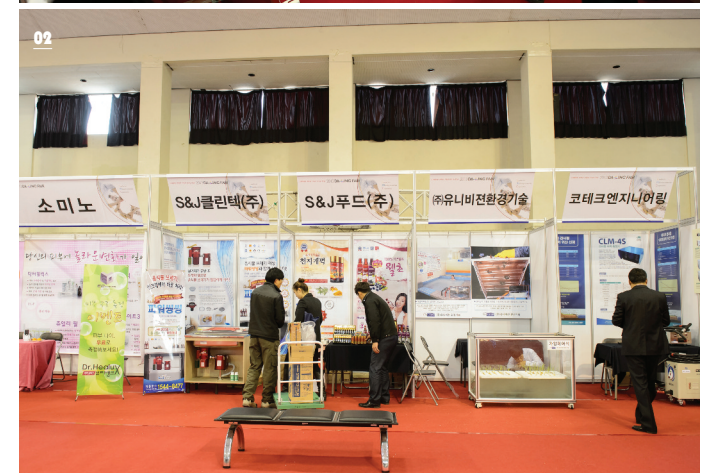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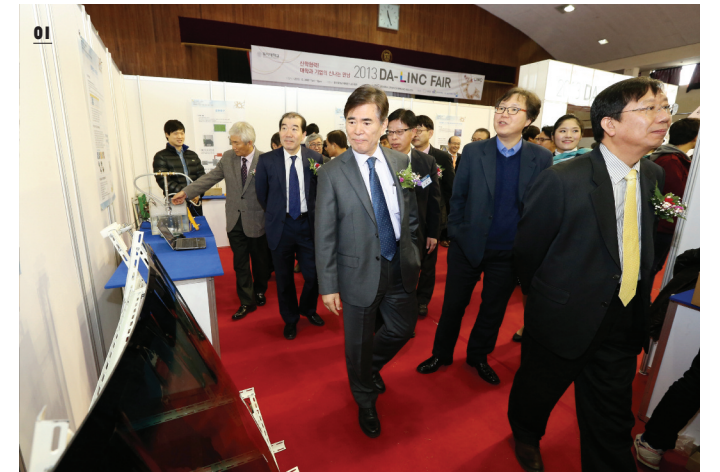
총 3부로 나누어 실시된 박람회는 학생과 기업체, 부산시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LINC사업단 운영성과를 알리고 산학협력에 대한 더 큰 기능성의 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에는 ▲LINC사업 경과보고 ▲가족기업 채용박람회 ▲캡스톤디자인 전시회 및 우수작품 경진대회 ▲창업동아리 전시회 ▲특성화연계전공 전시회 ▲산학협력협의회 등이 진행됐다.

산학협력협의회에서 동아대는 지역산업 발전과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 공동 협력체계인 사하구청과 사상구청, 사하구 및 사상구 기업발전협의회, 부산·울산지방 중소기업청,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STI) 등과 포괄적 협약식을 진행했으며, 세화그룹 및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정보통신기술) 업체들과 채용확정 협약식도 가졌다.

LINC사업단장 이진우 교수는 “산학협력을 통해 지역기업과 대학이 일궈낸 상생발전의 결실을 보여드리고자 이번 박람회를 마련했다”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셔서 올해 링크사업단의 성과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고 전했다.

동아대 LINC사업단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2013 산학협력 엑스포’에서 선전했다. ‘동아대-세화그룹 채용확정형 창의인재 기술개발교육과정’은 지역 창조경제 성장 견인과 산업체 수요 중심의 교육내용 등을 인정받아 ‘2013 산학협력 우수사례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또한, 함께 열린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 캡스톤 디자인 경진대회에서도 장려상을 수상하며 성과를 올렸다.

현재 동아대 LINC사업단은 6개 부문 특성화 연계전공 교육과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재직자 직무교육과 기업체 수요조사를 통한 개방형 고용 활용장비 구축 및 교육, 산학공동기술개발 과제 등을 실행함으로써 산학협력의 좋은 예가 되고 있다.



01.02 행사장 전경. 많은 이들이 DA-LINC FAIR를 방문해 사업단의 성과를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있다.

03 동아대LINC사업단은 DA-LINC FAIR를 통해 각 지자체와의 포괄적 협약식을 진행하고 있다.

고려시대의 향기, 석당石堂박물관에 스미다

동아대 석당박물관 소장 '황리현명 청동북',
보물 제1808호로 지정되다



황리현명 청동북은 현존하는 고려시대 청동북 중 4번째로 오래된 청동북이다.

고려시대는 우리나라 어느 시대보다도 공예 문화가 발달했으며, 뛰어난 예술성과 우수한 제작 기술로 공예 문화가 꽃을 피운 시대였다. **동아대 학교 석당박물관**(관장 정은우)이 소장하고 있는 '황리현명 청동북' 역시 천년의 숨결과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보물로 지정되는 경사를 맞아 화제가 되고 있다.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관장 정은우)이 소장하고 있는 '황리현명 청동북(黃利縣銘 靑銅金鼓)'이 지난해 11월 13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1808호**로 지정됐다.

청동북이란 말 그대로 청동으로 만든 북으로 금구(禁口), 또는 반자(飯子, 半子) 등으로 불리는 절에서 쓰인 의식법구의 하나다. 쉽게 말해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로, 절에서 대중을 불러 모으거나 급한 일을 알릴 때 썼다.

지름 32.9cm, 두께 8.3cm의 '황리현명 청동북'은 고려 선종 2년(1085) 황리현(黃利縣, 현 경기도 여주)의 민씨(閔氏) 등에 의해 제작됐다. 지난 1966년 강원도 원성군(현 원주시) 부론면 법천리에서 출토된 것으로, 1970년에 석당박물관이 구입한 후,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보존해오고 있다. 청동북의 앞면에는 크고 작은 동심원을 돈을 새김하고, 안쪽 동심원에는 연꽃무늬 당좌(幢座, 청동북의 표면에서 북채로 치는 부분)가, 바깥쪽 동심원에는 구름무늬가 새겨져 있다. 북의 뒷면

靑銅金鼓 黃利縣銘

에는 넓은 공명구를 뚫고, 측면에 명문을 오목새김하여 고려시대 청동북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준다. 청동북의 규모는 비교적 작은 편이나 짜임새 있는 앞면 구성, 앞면 convex 동심원에 상응하는 뒷면 concave 동심원, 측면에 명문을 새긴 점 등을 고려할 때 수준 높은 공예기술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황리현명청동북은 지금까지 알려진 통일신라시대의 시공사명 청동북(時供寺銘 靑銅金鼓 865년), 고려시대의 경암사명 청동북(瓊巖寺銘 靑銅金鼓 1073년), 법해사명 청동북(法海寺銘 靑銅金鼓 1084년)에 이어 **4번째로 오래된 청동북**으로 인정받고 있다. 또한 명문을 통해 정확한 조성연대를 알 수 있고, 반자라는 청동북의 명칭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고려시대 지방자치 제도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다른 가치를 가진다.

한편, 국보 2점과 보물 12점, 부산시 유형문화재 20여 점 등 모두 3만 여 점의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은 '황리현명 청동북'이 보물로 지정됨으로써 앞으로 문화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체계적인 유물 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 체계적인 소장품 관리와 보존을 통해 우리의 문화유산을 후대에 계승하고, 우리 문화 뿐 아니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국내에 소개하는 국제적인 석당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해 본다.



‘신뢰 경영’ 모두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열정과 도전’ 내일이 더 기대되는 사람으로

류진수
(주)대흥알엔티 회장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23기)

자동차의 핵심적인 주요기능부품을 생산하는 대흥알엔티. 이곳은 현대·기아자동차, GM, 르노, 토요타 및 미국, 일본, 중국, 인도, 유럽 등에 진출하여 기술력과 품질을 모두 인정받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다. 또한 ‘사람’이 중심이 된 기업운영은 대흥알엔티가 성장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되어왔다. 이 모든 바탕에는 신뢰 경영을 지향하는 류진수 회장이 있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동아대학교와 인연을 맺은 류 회장을 만나 그가 기업을 통해 꿈꾸는 비전을 들어봤다.



사람과 자연의 어울림, 송고한 가치를 기업정신으로 삼은 곳

김해시 진례면에 위치한 대흥알엔티. 이곳에서는 운전자의 승차감과 안전성을 높여주는 자동차의 엔진마운트, 서스펜션, 고압호스 등을 주력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다. 승차감을 책임지는 엔진마운트의 경우 50여 공정을 거쳐 탑승자가 최고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개발했으며 현재 5세대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의 2만여 개 부품 중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고압호스의 경우 세계특허공법을 적용해 신뢰도를 높였다. 영하 40도에서 영상 45도까지 어느 환경에서도 최적의 주행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서스펜션 역시 강한 내구성을 자랑한다.

각종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엄연한 공장이지만 이곳을 방문하면 ‘초록’의 푸르른 색이 가장 먼저 눈길을 사로잡는다. 전체 10만여 평의 부지 가운데 3만 평을 친환경 공법으로 조성해 임직원들이 자연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연구소 뒤의 꽃길둘레길을 따라 올라가면 엄동설한 눈속에도 2월까지 붉게 맺혀있는 낙상홍을 지나 길게 대나무길이 펼쳐져 있고 국내 최대를 자랑하는 210m길이의 웅장한 계류폭포의 뒤로 편백나무와 소나무가 울창한 3Km, 5Km코스의 산림욕 등산로가 펼쳐져 있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만끽할 수 있다.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이 자갈 밑의 미생물을 통해 반복적으로 정화되고 1급수의 물로 다시 태어나죠. 버려지는 물이 없어요. 숲을 가꾸는 물과 공장에서 사용되는 물로 재이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류진수 회장은 자연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는 마음으로 공장 뒤에 숲길을 조성했다.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에 딱딱한 이미지를 떠올렸지만 오산이었다. 대흥알엔티는 생산하는 제품의 이미지가 기업을 이끄는 것이 아닌, 사람과 자연의 아름다운 조화가 기업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

기업을 운영하는 CEO에게 필요한 자질이 무엇이나고 물었을 때 류 회장은 ‘남보다 앞서가는 자세’를 강조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앞서가는 기업, 도전하는 기업이 가져야 할 덕목이지 않을까.

자랑스러운 인생 선배, 류진수 회장이 후배들에게

자동차를 향한 고객들의 기대는 점점 상승하는 추세다. 그래서 대흥알엔티 역시 고객의 높아진 안목에 부합하는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다양한 업체와의 기술 개발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다. 일본 도카이고무, 메이지고무 등 선진

업체와의 활발한 교류는 끊임없이 발전하려는 이곳의 도전정신을 나타내는 좋은 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로 기업을 일궈 온 류진수 회장의 조언은 그래서 더 특별하다.

지난해 ‘자랑스러운 동아인상’을 수상하며 밝힌 소감에서 동아인을 향한 애정어린 마음을 볼 수 있었다.

“이 귀한 상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군요. 상 받은 다음부터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받았다’에서 그치지 않고 ‘받은 후’ 더 노력하는 기업가가 되고 싶네요.”

류 회장은 젊음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시기를 살고 있는 동아인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열정을 가지세요. 열정이 없으면 절대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있거든요. 매사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에게 ‘신뢰’가 쌓입니다.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류진수 회장이 내거는 신뢰의 가치는 기업 운영에만 필요한 자질이 결코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누구에게나 필요한 자세임을 강조하는 류 회장. 그런 그의 중심은 일하기 좋은 기업, 자연과의 조화로 상생하는 기업으로 (주)대흥알엔티가 탄탄대로를 걸어올 수 있었던 이유다.



01 친환경 계류 폭포, 연못 [용량 500t/h, 길이 210m, 높이 50m, 21단 폭포]



02 대흥알엔티 본사 및 연구소 전경
03 엄동설한 눈속에도 1월, 2월까지 붉게 맺혀있는 낙상홍 열매



이봉순
(주)리컨벤션 대표
(영문과, 82학번)

MICE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e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용어로, 전시·박람회 산업을 일컫는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불리는 MICE 산업은 그 자체가 블루오션으로 타 산업으로의 파급력이 큰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이다. 전 세계가 MICE산업 육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부산의 대표 MICE기업 (주)리컨벤션이 있다.

먼저 지난해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여한 대한민국 마이스(MICE)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이번 대상은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MICE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인정하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컨벤션 기업이라는 뜻일 것입니다. 이는 지방업체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는 의미 있는 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2001년 설립한 리컨벤션은 정말 눈부신 속도로 성장해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어떻게 컨벤션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까?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에서 홍보와 해외마케팅을 담당하면서 국제회의나 전시에 많은 참여를

했어요. 그러다보니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만나 만들어지는 네트워크가 바로 세상을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MICE라는 것이 글로벌 시대의 진정한 블루오션이라 생각했죠. 그 당시에 부산에는 BEXCO가 완공이 되기도 전이었는데 과감하게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지방업체라는 편견도 있었을텐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편견이 엄청났어요. 그래서 결국 해외로 눈을 돌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시·컨벤션 회사인 Reed에 무작정 문을 두드렸어요. 계속해서 제안서를 보내고, 메일도 보냈죠. 결국에는 너무 귀찮으니까 한번 보자고 했던 거예요. 그 기회를

바탕으로 MOU를 맺게 되었어요. 그 뒤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면서 유럽으로 진출했고, 거기서 거둔 해외실적을 바탕으로 다시 한국시장에 문을 두드렸어요. 그때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져 있었죠. 또 하나는 해양 관련 행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MICE기업이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것이 주효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무대로 일을 했고, 그만큼 잘 알고 있었죠. 더군다나 우리나라가 조선 분야에서 세계 1위이고, 항만물류 분야도 상위권이죠. 대한민국이 세계 해양을 주무르고 있다는 것이 큰 이점이었습니다.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시행착오는 없었습니까?

엄청 많이 겪었죠. 집도 날리고 땅도 날리고 사무실에서 생활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픈 상처이기도 하지만 저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실패가 없었더라면 지금의 제가 교만하게 일을 했을 것이고, 어설프게 성공한 사람에게는 되돌릴 수 없는 큰 실수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아주 적당한 시기에 극복할만한 실패를 주셨던 거죠. 덕분에 지금은 작은 행사라도 위기관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대처능력이 생겼죠. 이런 부분이 다른 회사가 가지지 못한 우리 회사만의 장점이 되었습니다.

컨벤션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희망적입니다. 14년 전만 해도 부산은 MICE 유치와 관련해 아예 순위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제회의 개최 실적 기준으로 아시아에서 5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는 19위. 다른 나라에서 놀라워하는 이야기죠. 14년 만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산이 가지고 있는 환경적인 요인이 매우 컸다고 봅니다. MICE라는 것이 휴양지로서의 환경도 좋아야 하지만 각 산업으로 연결되는 도시의 네트워크 역시 중요합니다. 부산은 두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도시

입니다. 컨벤션 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죠.

컨벤션 관련 학과의 학생들 사이에서 이 대표님을 '가장 닳고 싶은 롤 모델(role model)'로 손꼽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신가요?

정말 기분이 좋죠. 내가 그래도 잘 살아온 것 같다는 안도가 들고요. 그러면서도 책임감,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 잘해서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즐거운 부담감인 것 같아요.

많은 청춘들이 사회의 높은 턱에 부딪혀 좌절하고, 아파하는 등 그야말로 '안녕하지 못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동아대학교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부터 “4년 뒤에는 나는 이런 일을 할 거다”,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될 것이다”하는 마스터플랜과 청사진을 작성하게 그려 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부산을 떠나 수도권으로 향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산경남에만 500여 곳의 글로벌 기업이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충분히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대학 시절에 꼭 배낭여행을 가보는 것을 권하고 싶어요.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세상은 얼마나 넓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나 많은지 보고 오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멋진 사랑도 하길, 그 사람이 삶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계획, 대표님의 꿈이 궁금합니다.

현재 국제크루즈와 관련된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여러 프로젝트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사를 잘 치러내는 것이 앞으로의 계획이라 할 수 있겠죠. 리컨벤션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겨우 인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글로벌 MICE 기업으로 거듭나서 부산에서 글로벌하게 일하는 것, 그리고 부산을 글로벌한 도시로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01 2013 세계교회협의회 총회
02 2013 부산국제음식박람회
03 2012 세계 라이온스 대회
04 2012 IWA 세계물회의 및 전시회

스승의 선물, 열정을 키우는 밑거름이 되다

박은경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우리는 오늘의 교육을 말하면서 ‘선생은 있지만 스승이 없다’고 말한다. ‘스승’은 단순히 지식을 가르치는 선생이란 뜻이 아니라 삶의 지혜까지도 가르치는 진정한 선생님을 뜻한다. 건강한 사회의 이면에는 좋은 스승이 존재한다. ‘스승이 없다’는 말은 그만큼 ‘안녕하지 못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슬픈 자화상일 것이다. 이러한 현실 가운데 박은경 교수는 실천으로써 사회의 등불이 되고, 열정으로써 제자들에게 나침반과 같은 ‘스승’의 길을 걷고 있다.



놀이문화상 상금 전액을 기부한 박은경 교수

지난해 박은경 교수는 '제47회 놀이문화상 시상식'에서 받은 상금 전액을 대학발전기금으로 기부해 화제가 되었다. 놀이문화상은 동방유랑주식회사 창업자이자 부산상공회의소 제2, 3대 회장을 역임한 신덕균 선생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정한 상으로, 각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인재를 발굴, 그 공로를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산 지역 1호 불교미술 전공자인 박 교수는 일본·미국 등 해외에 산재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를 직접 찾아 저서 『조선전기 불화연구』를 통해 그 성과를 담아냈다. 이 책은 조선 전기에 그려진 불화에 관한 연구 논문들을 집대성한 최초의 논저이며, 수년에 걸친 방대한 연구 성과와 탁월한 연구 내용으로 불교미술 연구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놀이문화상 인문과학 부문에서 학술상을 받게 된 것이다.

“수상은 생각도 하지 못했는데,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금을 학과와 학교 발전을 위해 기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아대 출신이기도 한 박 교수는 결코 자신의 뿌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며 상금기부에 대해 전혀 고민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부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박 교수의 기부가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열정으로 보물을 돌려받다

이번 놀이문화상 수상은 지난 2005년 일본 교토 지역의 한 사찰로부터 '영산회도(靈山會圖)'를 환수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박 교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산회도는 가로 1.88m, 세로 2.27m의 불화로, 하단 묵서에 조선 명종 20년(1565)으로 제작시기가 분명히 기록돼 있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영산회도'의 환수는 국가 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이뤄진 성과로 당시 언론과 학계, 불교계의 큰 주목을 끌었다.

박 교수는 학창시절부터 일제강점기에 수탈당한 우리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그래서 다른 대학을 마다하고 일본의 교토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94년 2월까지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일본 전역을 발로 뛰며, 일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영산회도'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만날 수 있었다. 조사를 위해 교토에 있는 모 사찰에 꾸준히 연락을 취했고, 결국 사찰의 주지승에게 환수 의사를 들을 수 있었다. “주지스님이 언젠가는 한국에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인연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박 선생이 나의 인연 속으로 들어왔다’고 말하는데 느낌이 참 묘하더군요.”

'영산회도'는 임진왜란 이전에 제작된 희귀한 불화로 지난 2007년 보물 제1522호로 지정됐다. 박 교수는 이러한 소중한 문화재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한국에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이 큰 영광이었고, 앞으로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를 찾아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한다.

▼ 영산회도(靈山會圖)



유기능 같은 인재를 키워나가는 꿈을 꾸다

해외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를 조사하고, 되찾아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는 박 교수는 학생들과 함께 팀을 이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참 즐거운 일이라고 한다. 지난 2월에도 중국을 방문해 원명(元明)시대의 불교회화를 연구하고, 중국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조사하는 프로젝트를 마치고 돌아왔다. “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문화재가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것만큼 짜릿하고 감동적인 스토리는 없는 것 같습니다.”

박 교수는 '열정의 멘토, 치유의 멘토'가 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이전에는 학자로서 연구를 하고 책을 내는 것만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양한 강좌와 강의를 통해 사람들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인문학강의를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대학에서의 강의 뿐만 아니라 전국의 불교미술 관련 특강에서 초청 대상 1호로 분류되는 인문학자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전문위원으로 분야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맹활약하고 있다.

학생들과 허물없이 어울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를 종종 마련한다는 박 교수는 많은 학생들이 행동은 하지 않고 고민부터 한다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저는 학생들에게 실천부터 하라고 합니다. 강물도 발을 담가봐야 깊이를 아는 것이죠.” 열정을 가지고 학문에 대해 순수하게 열려 있는 학생들을 위해 좋은 밑거름이 되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고 말하는 박은경 교수. 그가 키워낸 유기능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아인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본다.



아름다운 동아인,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씨앗을 뿌리다

엄기섭
한진물산(주) 대표이사
(화학과, 66학번)

경주의 최 가(家)는 세계에 유례없이 한 가문이 300년 동안 부를 이룬 명가다. 최 부잣집의 후손들은 선조들이 세워놓은 철학과 경륜을 지키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했으며, 그 당시 민중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명가(名家)로 손꼽히고 있다. 엄기섭 한진물산(주) 대표이사 역시 경주 최씨 가문과 같은 대한민국의 명문가를 꿈꾸고 있다.

정도를 지키며 나눔을 실천하다

엄기섭 대표는 동아대 화학과를 졸업하고,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던 시기인 1979년 한진물산(주)에 입사했다. 당시 국가 산업을 견인하던 제조업 분야는 낙후된 정밀가공용 기계 공구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진물산은 국내 최초로 절삭공구류를 수입·보급하기 시작했다.

엄 대표는 지난 1993년부터 한진물산(주)의 대표이사를 맡아 ‘정도(正道)를 걷는다’는 경영철학으로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동시에 회사도 질적·양적 성장을 거듭해 입사 당시 연 매출 1억 규모의 회사에서 현재 국내 정밀가공용 기계공구류 수입 분야의 ‘공급 물량 1위’ 선도 업체로 발돋움했다.

빛나는 성장을 일궈낸 엄 대표는 결코 성장만을 바라보고 달려오지 않았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부자가 아니라, 존경을 받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을 도와준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 부자이지 않을까요.”

나눔 명가(名家)를 꿈꾸다

엄 대표는 30여 년간 적십자 봉사원으로 활동한 모친과 은강장학회를 설립한 부친 엄재우 초대 이사장을 본받아 기부와 나눔을 실천해왔다. 지난 2011년부터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은강장학회는 현재까지 425명의 학생에게 6억 6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기업 이윤의 사회 환원’을 평생 지켜야 할 신념으로 삼고 있는 엄 대표는 추가적으로 사재를 출연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엄 대표는 ‘사랑의 열매 아너 소사이어티(Honor-Society)’에 가입했다. 아너 소사이어티는 연간 1억 원 이상을 기부(또는 약정)한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로 전국에 448명, 부산지역에는 엄 대표를 포함한 40명의 회원이 있다. 엄 대표는 “나눔의 미덕에 대해 다시 생각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가입하게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사랑하는 이를 생각하면 자신도 모르게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처럼, 기부와 봉사는 자신의 삶에 행복한 미소를 짓게 해준다는 엄 대표. 그는 기업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은 물론,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자신의 신념이 자식들에 대물림되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명문 가문이 되길 바라고 있다.

동아인의 길을 걷다

엄 대표는 지난 2004년 ROTC동문회 회장 재임 당시, 사재를 출연해 만든 장학제도를 통해 매년 2명의 후보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후배들의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하여 수년간 특강을 기획할 만큼 모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직접 연사로 나온 강연에서는 나이를 무색케 하는 열정으로 후배들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엄 대표의 공로를 인정한 동아대 대학원은 지난 2008년 명예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신문에 나오는 동아대의 소식은 빼놓지 않고 지켜본다는 엄 대표. 변하지 않는 애정과 헌신으로 앞으로도 계속 모교발전을 위한 길에 동참하겠다고 한다. “후배들은 선배들이 걸어온 발자국을 바라보고 그 길을 따라 걷습니다. 저는 동아인으로서는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가 될 수 있도록 정도(正道)를 걸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엄 대표는 후배들에게 다음의 말을 전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패 역시 청춘의 특권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반드시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동아인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거침없이 걸어가는 그의 길을 많은 후배들이 따라 걷길 기대해본다.



문화예술 · 건강 · Nobless Oblige

골프CEO 최고위자과정

| 주요 내용 |

구 분	교과 내용
강의(이론+실기)	주 1회 매주 목요일 15:00 ~ 18:00
특강	－ 재단이사장 및 총장
	－ 국내외 유명인사 및 전문가
	－ 본교 의료원장 및 교수
골프 라운딩	매 학기 3회의 실전라운딩을 통해 실력 및 원우들과의 교육효과 향상 도모
해외 연수	매 학기 1회의 해외 및 국내 원정을 통해 실력 및 국제 안목 증대
원우회	수강 기간 중 자치회를 실시하여 원우들 상호간의 친목 도모
동아리	문화체험 프로그램 및 스포츠 동아리 운영으로 원우들 간의 친목활동

| 강사진 |

- **설상철** 동아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 평생교육원장 / 총괄지도교수
- **권유찬**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교수 / 평생교육원부원장
- **이동기** 동아대학교 골프CEO 최고위자과정 담당 교수
- **양충모**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외래교수 / 체육학박사
- **김태형**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외래교수 / 체육학박사
- **이성수** 동아대학교 스포츠과학대학 교수 / 체육학박사

| 모집요강 |

구 분	세부내용
모집인원	50명 내외
교육기간	2014. 03. 01 ~ 2014. 12. 31
교육장소	－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평생교육원) － 시티원 골프연습장(남구 대연3동)
지원자격	－ 기업 및 단체의 임원급 이상 경영자 － 전문직 종사자 및 개인사업자 － 사회 전문분야 지도층 인사 － 총동문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서류심사를 통과한 자 － 전업주부
제출서류	－ 입학지원서(소정양식) 1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여권 사본 1부 － 사진(반명함판 또는 명함판) 1매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동아대학교 평생교육원 행정지원실 － 행정지원실 : Tel 051-200-8452~6 / Fax 051-200-8457 － 접수방법 : 우편, FAX 또는 방문접수
교육비	－ 등록금 : 440만 원(1학기 220만 원) － 입금계좌 : 농협 317-0002-8858-81 예금주 : 동아대평생교육원
특전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수료증 － 동아대학교 의료원 우대 할인(15%) － 동문 카드 발급 － 티칭프로 선발 및 연수 교육 일부 혜택



세상이 각박하고 복잡해질수록 중요한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심신을 단련하는 지도자만이 진정한 지도자가 할 수 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웰빙(Well-Being)의 열기는 단순히 육체의 건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조화로운 상태를 지향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골프CEO 최고위자과정은 골프를 통해 건강한 심신, 즉 웰빙의 삶을 추구하는 교육과정이다.

68년의 역사와 전통이 있는 한강이남 최고의 명문사학인 동아대학교는 2014년 새해에도 ‘골프CEO 최고위자과정’을 개설해 심신이 건강한 지도자를 초대하고 있다. 이 과정은 현재까지 700여 명을 배출한 전통 있는 골프 교육 프로그램으로 체육학 박사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CEO들의 건강 뿐만 아니라 골프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일조할 것이다.

또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각 기업의 CEO에게 문화적이고 품격있는 인적 네트워크를 쌓는 교류의 장도 마련하고 있다. 골프CEO 최고위자과정은 각 기업의 CEO에게 18만 동아대학교 동문들과의 인적네트워크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함정임 교수가 전하는 불멸의 저자들

－ 알베르 카뮈

글 | 함정임 소설가 · 동아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프랑스에서 해마다 독자 20만 명이 생성되는 소설이 있다. 원고지 500장 분량, 200쪽이 조금 넘는 알파한 소설책이다. 이 소설이 세상에 나온 것은 독일군 점령하의 1942년 5월, 작가 나이스 물아홉 살 때였다. 첫 소설이었고, 프랑스 본토가 아닌 북아프리카 프랑스령 알제리 출신이었다. 작가의 이름은 알베르 카뮈, 소설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된다. “오늘 엄마가 죽었다.”

소설사에서 이 첫 문장의 위력에 대적할 만한 작품은 흔치 않다. 이 첫 문장만으로 독자들은 소설의 제목이 ‘이방인’이고 주인공이 뫼르소라는 것을 자동적으로 떠올린다. 어미의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날 여자와 자고, 태양이 내리쬐는 바닷가에서 아랍인 청년을 권총으로 쏘 죽이고, 재판정에서 살인 동기를 묻자 ‘태양’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사형이 언도되자 사형 날 많은 사람이 구경 와서 자신을 심하게 아유해주기를 바라는 새내가 뫼르소이다. 표면적인 줄거리만 보면, 뫼르소는 영락없는 성격파탄자(사이코 패스)이다. 그러나 소설의 심층, 곧 작품의 주제인 세계의 부조리와 인간의 반항에 초점을 맞추면 뫼르소의 의식과 행동에 동참하게 된다. 이때 뫼르소는 성격파탄자가 아니라 부조리한 인간 조건을 자각한 최초의 이방인으로 탈바꿈된다.

알베르 카뮈는 1913년 프랑스 식민지 알제리에 이주한 프랑스인 아버지와 스페인인 어머니 사

이에 태어났다. 이듬해 아버지가 제1차 세계대전에 징집되어 전사하고, 홀어머니 슬하의 극빈 가정에서 자랐다. 가진 것이라고는 몸통이 밖에 없는 할벗은 가정환경은 북아프리카 지중해안의 강렬한 태양빛과 형형색색 흐드러진 향초(香草)들과 대비를 이루며 카뮈의 문학 언어를 형성한다. 카뮈에게 태양은 본능이자 혼(魂)의 영역이다. 뫼르소라는 이방인의 존재를 전무후무하게 만든 것도 바로 이 ‘태양’이다.

카뮈를 한 사람의 작가로 성장시킨 것은 어머니와 장서가인 외삼촌, 초등학교 선생님과 고등학교 은사이자 평생 문우인 장 그르니에이다. ‘이방인’의 출판 과정에는 앙드레 말로의 열광적인 평가가 있었다. 변방인 카뮈의 출현은 파리의 문학 지성계를 전율시켰다. 파리 고등사범학교 출신에다가 지성계의 중심에 있던 부르주아 출신 사르트르와는 근본은 달랐으나 ‘이방인’ 한 편으로 문학적으로 어깨를 겨누는 문우가 되었고, 실존주의와 다른 노선의 ‘부조리와 반항’을 표방하며 사상적인 라이벌이 되었다.

변방인 카뮈가 태생지의 태양을 앞세워 중심으로 돌격했지만, 뒤에 남는 문제들이 있었다. 어머니와, 프랑스령 지지자와 독립파 사이로 반분된 태생지 알제리, 그리고 17세에 발병해 주기적으로 재발하는 폐결핵이었다. 문맹자로 귀머거리에다가 반병어리인 어머니는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았다. ‘이방인’의 평이한 듯 극도로 절제된 문체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로부터 익힌 침묵의 심연을 행간마다 거느리고 있었다. 알제리에 대해 카뮈는 식민 상태 독립도 아닌 두 가지를 절충한 연방제를 지지했다. 전후 유럽은 숙청 문제, 사형제도, 좌우 이데올로기의 시험대를 거치고 있었고, 작가들의 사회참여와 발언이 대세였으며, 정치적 입장을 강요하던 때였다. 어머니의 죽음에도 놀랄 만큼 초연하고, 주변 환경에도 비현실적으로 무관심하며, 어떠한 선택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않는 모호한 태도의 뫼르소라는 인간은 당시 시대 정서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이단적인 존재였다.

카뮈는 44세에 최연소로 노벨문학상을 받았다. 문단도 언론도 수상 소식에 호의적이지 않았다. 카뮈는 기쁨보다는 우울과 절필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렸다. 그는 싸움꾼과 적들로 변한 문단과 파리를 떠나 남프랑스의 루르마랭에 동지를 틀었고, 절필의 불안감과 싸우며 초심으로 돌아가 자전적 소설인 ‘최초의 인간’에 몰두했다. 작가의 삶이 작품만큼이나 극적인 경우가 있는데, 카뮈의 마지막이 그러하다. 그는 가치를 타고 가려고 예매했던 티켓을 주머니에 넣고 친구의 자동차로 파리로 올라가던 중 교통사고로 즉사했다. 당시 그의 나이 47세였고, 세월이 흘러 그가 태어난 지 올해로 꼭 100년이 된다.

※ 위 글은 2013년 12월 7일자 조선일보 문화/출판 면에 연재된 글입니다.

알베르 카뮈, 더 알고 싶다면 ...

‘이방인’ 전후에 읽을 책으로, 스물세 살의 카뮈가 쓴 산문 ‘결혼’을 권한다. 수록작 네 편 중 ‘티파사의 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문으로 정평이 나 있다. 카뮈 연구의 대가 김화영 선생은 이 산문에 이끌려 평생을 카뮈 연구에 바쳤다고 고백한다. 카뮈 연구 30년 만에 현장을 찾은 김화영의 ‘알제리 기행’은 두 겹의 여행을 실현시켜 준다.

‘최초의 인간’은 유작이자 미완 소설이다. 카뮈가 자기 삶과 문학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써나간 자전적 소설이다. 카뮈 사후 34년 만에 말이자 카뮈 문학 전문 편집자인 카트린 카뮈가 편집해서 출간했다. 세상의 모든 유작이 그렇듯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작가가 미처 다듬지 못한 문장과 채우지 못한 단락을 따라가며 완성해가는 의미가 있다.

석당인재학부, 행정고시 합격자 첫 배출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3학년 이혜민 학생

글 ! 박민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pmj11111@dau.ac.kr



“특별한 **꿈**이 있다면 특별한 **행동**을 해라”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이혜민 학생이 제57회 5급(행정) 공개경쟁 채용시험(이하 행정고시)에 최종합격해 화제다. 동아대 석당인재학부의 홍보책자를 보고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 이혜민 학생은 지난 2010년 3월에 동아 Superior 인재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했다. 행정고시라는 큰 산을 넘어 꿈을 향해 달려가는 이혜민 학생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석당인재학부, 꿈이 시작되는 곳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까지 교육대학교를 목표로 공부했던 이혜민 학생은 우연한 계기로 새로운 꿈을 가지게 되었다. 교사를 꿈꾸던 이혜민 학생이 친구가 건네준 석당인재학부 홍보책자 덕분에 행정전문가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책자에는 석당인재학부의 다양한 혜택과 진로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석당인재학부는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와 기숙사 및 전용 학습공간 제공은 물론 연간 480만 원의 교재비 등을 지원했어요. 이런 파격적인 혜택에도 물론 눈길이 갔지만, 트랙별 전공과정 운영을 통해 전공지도교수에게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자율전공이라는 점이 더욱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신설된 학과이기에 부담도 있었지만, 선생님께 학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이곳이라면 새로운 꿈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행정고시, 자신과의 싸움

석당인재학부에 입학한 이혜민 학생은 1학년 때 행정고시의 자격요건인 토익과 한국사를 준비했고, 2학년이 되어서는 학교 공부에 비중을 두

었다고 말했다. 석당인재학부는 학생들의 공공정책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 게재 등을 지도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학문적 성향을 가진 공부와는 차별화된다. 그런 이유로 전공과목과 고시공부를 병행하기란 쉽지 않다. 이에 이혜민 학생은 틈틈이 인터넷 강의를 통해 행정고시의 전체적인 맥락을 잡는데 집중했고, 2학년을 마친 후 서울의 고시촌에서 행정고시 준비를 시작했다. 고시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몰려있는 그곳에서 이혜민 학생은 자신과의 싸움에 돌입했다.

Dreams come true

행정고시 1차 시험은 PSAT(Public Service Aptitude Test, 공직적성검사로 이루어진다. “적성시험의 성격을 가진 PSAT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 아니기에 막연한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정한 할당량은 꼭 채웠어요. 그 결과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었습니다.” 기쁨도 잠시, 이혜민 학생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2차 시험을 준비하면서 2개월 동안 매일 20페이지가량의 답안을 작성하느라 팔목에 무리가 생긴 것이다. “다행스럽게도 심각한 상황은



아니어서 한방치료와 물리치료를 병행하면서 서서히 좋아졌고, 무사히 2차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최종 면접까지 절대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행정고시 2차에 합격하고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서 힘들었지만, 교수님들과 행정고시에 먼저 합격한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면접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한 꿈, 특별한 행동

“특별한 꿈이 있다면 특별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꿈이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꿈이 없는 것보다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저는 행정전문가가 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했어요. 꿈이 있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끈기와 결단력 있는 행동만 있다면 그 꿈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 확신해요.” 행정고시를 준비하느라 대학생활을 마음껏 누리지 못한 이혜민 학생은 누구보다 알차게 남은 대학생활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단순한 동아대 졸업생이 아닌 수석여가 있는 동아대 졸업생이 되고 싶다는 이혜민 학생에게서 동아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증강현실’ 기술, 그 중심엔 ‘서머너즈’가 있다

글 '차지혜 대외협력처 홍보팀 jhcha@dau.ac.kr

단순한 그림카드 한 장과 스마트폰만 있으면 3D 입체영상으로 사물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있다. 컴퓨터공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우 학생은 ‘증강현실’이라는 기술을 통해 이 앱을 개발, ‘서머너즈’를 창업해 월 2,000만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그를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01. 02 서머너즈의 앱을 통해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다. 서머너즈의 리플렛과 티셔츠에 각각 앱으로 접속한 화면을 대면, 사전에 제작된 캐릭터들이 생생하게 움직인다. 03 서머너즈 엔터테인먼트 사무실 내부.

Summoners Entertainment

‘서머너즈’ 열정 가득한 시작

서머너즈 엔터테인먼트(Summoners Entertainment)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주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웹 기반 솔루션을 제작하고 있다. 서머너즈는 대표 김동우 학생을 비롯해 창업 멤버 3명이 시작한 회사로, 증강현실 개발팀과 웹 솔루션 개발팀,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고, 직원들 중 다수는 동아대 컴퓨터공학과 출신이다. “우연한 기회에 프리랜서로 홈페이지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하다 보니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 실무 경험을 살려 기술을 개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와 함께 1년간 ‘증강현실’ 기술을 준비했고, 동아대 창업지원단을 통해 ‘서머너즈’라는 회사를 창업할 수 있었어요.”

‘증강현실’ 기술, 날개를 달다

개발한 증강현실 기술을 알리기 위해 많은 업체를 방문했지만 다소 생소한 기술인데다 학생 신분인 이들에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그래서 찾은 돌파구가 ‘SW(소프트웨어)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였다. “공모전 참여를 계기로 좋은 성과를 얻었고, 이로 인해 ‘증강현실’ 기술과 함께 ‘서머너즈’ 회사도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또한 소상공인에게 재능기부를 하면서 실무를 경험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어요.”

‘증강현실’ 기술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를 결합하여 보여준다는 뜻으로 구글 글래스가 대표적이다. ‘서머너즈’가 개발하는 증강현실은 이미지 기반 인식 기술로서, QR코드가 없어도 앱을 통해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대상을 인식하여 보여주고 싶은 콘텐츠를 제공한다. 이 기술을 통해 개발한 앱으로는 <주>한이 재미>의 역사교육 호이호이 보드게임에 역사유물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호이호이’와 <과학기술협의회>의 궁리마루 로고를 통한 증강현실 앱인 ‘궁리아이’, 해운대 실내동물원 <주렁주렁>에서 쓸 수 있는 ‘주렁아이’ 등이 있다.

무한한 가능성을 향한 힘찬 발걸음

‘증강현실은 서머너즈’라는 모토를 내걸어 누구나 증강현실을 만들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편지에 영상이나 자신의 캐릭터를 넣어 스마트폰을 통해 볼 수 있거나, 제품에 그림이나 설명을 넣어 별도의 사용설명서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을 누구나 무료 제작할 수 있는 앱을 개발 중이며, 올해 안에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과 학생들을 연결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SW 동아리 재능기부 챌린지 참여를 통해 소상공인과 학생들이 함께 윈-윈(win-win)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마침 공모전을 담당했던 분이 저희에게 의뢰를 해왔고, 흔쾌히 하기로 했어요.”

끝으로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많은 분들이 스펙 경쟁과 취업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창업도 하나의 스펙이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이 있다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이라면 많은 돈을 가지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고자 하는 열정만 있다면 방법은 많습니다. 생각했다면 주저하지 말고 행동하세요.”



※ 촬영협조 : 기장문화예절학교(051. 728. 8020)

유학생들의 꿈이 실현되는 곳, 동아대에서 그들만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글 | 차지혜 대외협력처 홍보팀



관광경영학과 11학번 가이다 올레샤(Gayda Olesya) 학생과 기계공학과 10학번 줄카닌 마무드(Zulkarnine Mahmud) 학생을 만나 기장문화예절학교를 방문했다. 인터뷰 내내 해맑은 미소로 유학 생활 이야기를 이어가는 그들에게 더 이상 한국은 낯선 곳이 아니라 새로운 인연을 만나고 꿈을 실현하는 곳이었다. 이들의 미래에 따뜻한 봄날을 기대하며, 두 학생의 좌충우돌 유학 생활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한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가이다 올레샤(이하 올레샤) 평소 여러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해 러시아에서 한국어 번역학과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던 중 정부초청장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관광 관련 분야로 유명한 동아대에 주저 없이 원서를 냈고, 입학하게 되었어요.

줄카닌 마무드(이하 줄카닌) 한국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이라 예전부터 유학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도 정부초청장학생으로 한국에 오게 되었고, 동아대에는 이공계열 쪽으로 훌륭한 교수님들이 계셔서 고민 없이 입학했어요.

Q 유학생생활 중 가장 재미있었던 일과 기억에 남는 수업은 무엇인가요?

올레샤 관광경영학과 특성상 답사를 많이 다니는데 4박 5일 일정으로 여수를 방문해 관광지과 맛집을 탐방했을 때가 가장 재미있었어요. 친구들과 추억도 만들고 한국 문화를 더 많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기억에 남는 수업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익히면서 국제 비즈니스 상황 예의에 대해서 배우는 국제매너 수업이 유익했어요.

줄카닌 알고리즘과 기계요소설계 수업이 좋았어요. 교수님들이 잘 가르쳐주셨고, 다양한 수업 방식으로 진행되어 이해도가 높았어요. 학과 친구들과 함께 공모전을 준비할 때를 떠올려 보면 지금도 웃음이 나요. 과정은 많이 힘들었지만 결과도 좋았고,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어요.

Q 유학 생활을 통해 느끼게 된 한국 문화는 어땠나요?

올레샤 조별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느낀 한국의 공동체 문화가 인상 깊어요. 한국어 실력이 유창하지 않았던 1,2학년 때는 과제를 수행하거나 전공과목을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학생들과 교수님들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밥을 먹을 때나 항상 함께 어울려 지내는 문화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고, 덕분에 쉽게 적응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줄카닌 공과대학은 공모전에 참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팀 활동을 하게 되면 의견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그때마다 서로 배려하고 원활하게 극복하는 모습에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돈독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고, 한국 사람만의 정서라는 정(情)을 알 수 있었어요.

Q 동아대라서 좋은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올레샤 동아대에는 승학, 부민, 구덕 3개의 캠퍼스가 특성화 되어 있고, 각각의 캠퍼스에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많아요. 특히 유학생과 재학생이 교류할 수 있는 ‘글로벌 존’이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늘 가득 차 있는 열람실을 보며 동아대 학생만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로 인해 나도 더 분발할 수 있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줄카닌 동아대의 교수님들과 국제교류과 직원들이 모두 친절하 것이 좋아요. 특히 어려운 부분은 도와주시고 모르는 것은 설명해주셔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요. 그래서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유학 생활에 활력이 더해지는 것 같아요.

Q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올레샤 이제 곧 졸업이고, 취업에 대해서 고민이 많지만 동아대에서 공부하면서 배운 많은 것들이 좋은 발판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최선을 다해 좋은 직장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동아대의 명성을 빛낼 수 있도록 노력할거예요.

줄카닌 아직도 한국에서 하고 싶은 일과 배우고 싶은 것이 많아요. 졸업이 1년 남았으니 더 많은 것을 익혀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거예요. 그 중심에 동아대가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요.



우수동아리 콘테스트 수상팀, <미카>와 <팁시>를 만나다

글 ' 박민정 대외협력처 홍보팀



MICCA

로봇동아리

동아대학교는 건전한 동아리 활동을 장려하고, 우수한 동아리를 발굴·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취업에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 11월 ‘우수동아리 콘테스트’를 개최했다.

그 결과, 133개의 동아리가 참여한 가운데 로봇제작 동아리 <미카>가 대상을 받았으며, 댄스 동아리 <팁시>와 태권도 동아리 <동아익스트림>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에 <미카>와 <팁시>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TIPSY

댄스동아리

미카와 팁시, 그들의 이야기

미카(MICCA)는 마이크로컴퓨터연구회(Micro Computer Control Association)의 약자로 1988년 동아대학교 공과대학 소속 학술팀에서 출발했다. 미카는 단순한 학술팀을 넘어 공학도로서 진정한 진리추구와 학문적 연구를 통해 마이컴을 이용한 제어장치(로봇제작, 마이크로마우스, 임베디드기기 등)를 제작하고, JAVA와 WEB, Linux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다.

‘술에 약간 취하다’는 의미의 댄스 동아리 팁시(Tipsy)는 2009년 6월에 만들어져, 이듬해 정식 동아리로 승격되었다. 팁시는 방송댄스를 중심으로 퍼포먼스를 기획하여 축제와 공연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으며, 길거리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도 소통하고 있다.

대학의 낭만에 스펙을 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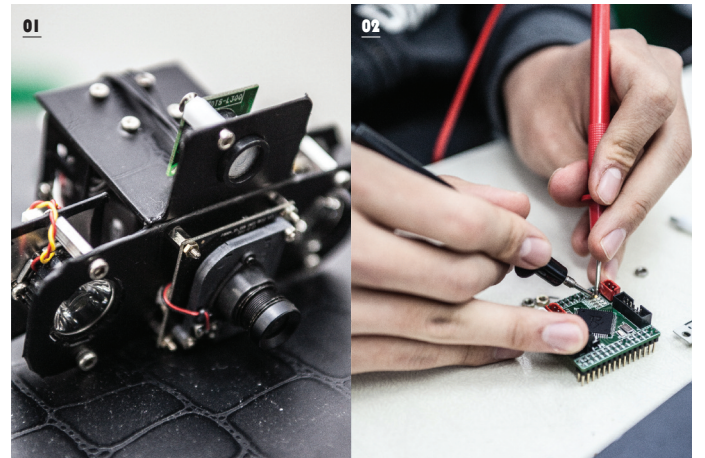
박동일(전기공학과 3) 회장과 심규형(기계공학과 3) 총무를 중심으로 미카는 각종 대회에 참가하여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한국지능로봇경진대회’에서 대상과 산업안전상을 수상했으며, 다음 해인 2013년에는 산학협동재단 이사장 상을 받는 쾌거를 이뤘다. 이 밖에도 카이스트에서 열린 웨어러블 컴퓨터 대회에 참가해 금상과 삼성전자상 등을 받아 명실상부 스펙동아리로 거듭나게 되었다.

팁시는 전승언(경영정보학과 4) 회장과 임종덕(경영정보학과 3) 부회장을 중심으로 각종 축제와 공연활동 등을 하고 있다. 지난 2012년에는 공군 위문 공연을 펼쳤으며, 부산 국제교류재단을 통해 일본 교류공연도 다녀왔다. 특히 팁시는 1기 때부터 길거리 공연을 통해 시민들과 어울려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다. 부산 지역 내 최고의 댄스 공연 동아리로 자리 잡은 팁시는 다양한 공연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

대학생이라는 이름의 패기와 열정

미카는 선후배가 함께 모여 설계공부와 로봇제작을 하고 있었다. 자신들의 로봇을 보여주는 그들의 얼굴에 자신감과 자부심이 가득했다. 팁시 역시 추운 날씨에도 공연 연습으로 땀을 흘리고 있었다. 누구 하나 움츠리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그들의 열정이 감동적이다.

미국의 명사인 롱펠로(Henry Wadsworth Longfellow)는 ‘청춘은 우리 인생에서 단 한 번밖에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패기와 열정으로 대학생회에 임하고 있는 미카와 팁시에게서 청춘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다.



01. 02 MICCA는 자신들의 손으로 직접 설계하고 프로그래밍해서 로봇을 조립한다.

03 TIPSY는 춤을 매개체로 다양한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04 '우수동아리 콘테스트'에서는 총 16개 동아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우리 대학 캠퍼스 어디까지 가봤니?!

캠퍼스의 낭만과 아름다운 추억들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겼다. 지난해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동아대학교 출판부에서 실시한 ‘캠퍼스사진 공모전’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연과 조화된 동아대학교의 사계절을 표현했다. 계절마다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는 동아대학교의 사계(四季)를 한 장의 사진 속에서 만나보자.



봄, 구덕

이윤경 의학전문대학원 2학년

장 소 | 구덕캠퍼스 석당기념관과 의과대학 부근의 정원

“사진 속 장소는 구덕캠퍼스의 석당기념관과 의과대학 사이의 작은 정원으로, 교정 곳곳에 핀 매화나무가 수려한 경관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저는 새 학기마다 친구들과 함께 이곳을 찾아 완연한 봄의 경치와 기운을 만끽합니다. 목련과 금목서, 소나무 등이 수놓아진 정원은 부산광역시 근대건축물로 지정된 석당기념관과 짝을 이뤄 계절마다 서로 다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새하얀 승학캠퍼스

이성민 경영학과 4학년

장 소 | 승학캠퍼스 대운동장 일대

“이날은 부산에 눈이 마구 쏟아진 날이었습니다. 폭설 때문에 셔틀버스가 운행되지 않아 수북이 눈이 쌓인 108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불안하기도 했지만, 사방을 덮은 승학캠퍼스를 보며 감탄했던 기억이 절로 떠오릅니다. 눈앞의 도서관을 중심으로 승학산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광경은 잊을 수 없을 만큼 웅장하고 고요했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문진현 생명공학과 2학년

장 소 | 부민캠퍼스 일대

“부민캠퍼스를 살펴보면 임시정부청사를 리모델링하여 건물 자체가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석당박물관을 중심으로 (구)부산고등법원으로 사용되던 법학전문대학원과 최신 설비를 갖춘 국제관 및 종합강의동이 좌우로 펼쳐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으며 이러한 고전미와 세련미를 동시에 표현하기 위해 청명한 가을 날씨 아래 반대편 건물 옥상에서 촬영을 하였습니다.”

900대 3 산업디자인학과, 전 세계와 경쟁한다

2014 미쉐린 디자인 공모전 파이널리스트 15인에 동아대 산업디자인학과 학생 3명 올라

글 | 정민석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jungms@dau.ac.kr



※ 미쉐린의 심볼 마크인 비벤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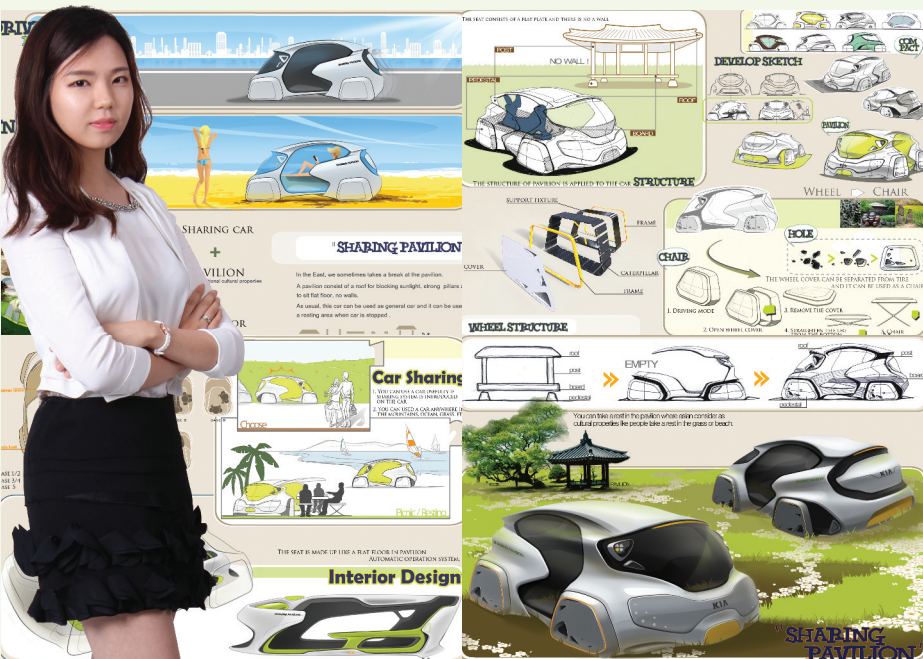
올해로 14회를 맞은 '미쉐린 디자인 공모전(Michelin Challenge Design)'은 현재까지 전 세계 6천 명 이상이 참여한 세계적인 공모전이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미쉐린(Michelin et Cie)은 심볼 마크인 '비벤덤(Bibendum)'으로 국내에 익히 알려져 있으며, 매년 공모전을 통해 자동차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디어와 디자인을 생성하고 있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이번 공모전은 '세계 7대 공모전'으로 불린다. 최종 결선 진출자를 뜻하는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될 경우 'North American International Auto Show(NAIAS, 디트로이트 모터쇼)'와 같은 세계 굴지의 모터쇼에서 자신의 작품을 전시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6월에 열린 '2014 미쉐린 자동차 공모전'은 그 명성에 걸맞게 세계 유수 대학과 기업에서 온 900여 명의 디자이너가 참석했다. 여기에 동아대 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남동우·류경덕·이다은 학생은 60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최종 결선 진출자 15인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파이널리스트에 선정된 동아대 학생들의 작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다은 학생
쉐어링 파빌리온
Sharing Pavilion



류경덕 학생
파이안
Paean



남동우 학생
인큐베이터
Incubator



이다은 학생 / 셰어링 파빌리온(Sharing Pavilion): 동양의 휴식문화인 정자의 개념을 자동차에 적용시킨 디자인으로 평소에는 일반 자동차처럼 사용되지만, 정차 시에는 정자의 모습으로 변해 주행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다. 파빌리온은 점차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레저 활동에 최적화되어 있으며 바퀴가 소형 무한궤도로 되어 있어 산과 강, 바다 등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다.

류경덕 학생 / 파이안(Paean): 바쁜 일상 속 지쳐가는 현대인들을 위해, '한 그루 나무'와 같은 휴식형 자동차를 디자인했다. 파이안은 스피드와 힐링, 휴식 3가지 형태로 디자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주요 기능으로는 ▲주행 시 유선형 디자인으로 공기저항을 줄여 속도를 즐길 수 있는 스피드 모드 ▲나무 베이스 차량과 숲의 나무가 내뿜는 피톤치드를 느끼며 달릴 수 있는 힐링모드 ▲마치 한 그루 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는 것과 같은 휴식 모드가 있다. 그밖에 타이어를 통해 지면과 공기 중에 있는 습기를 물로 변화시킨 뒤 수소를 추출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콘셉트 또한 눈길을 끌었다.

남동우 학생 / 인큐베이터(Incubator) : 지구온난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남아프리카의 야생 동물을 구조하기 위해 디자인된 1인승 사파리 차량. 다친 동물을 신속히 구조할 수 있도록 아프리카 풀숲을 자유로이 누빌 수 있게 했다. 바퀴에 설치된 패널을 통해 아프리카의 뜨거운 지열을 자동차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콘셉트가 인상적이다.

이번 공모전은 스튜어트 리드(Stewart Reed) 미국아트센터디자인대학 학과장을 비롯해 벤츠, 현대, GM, 포드, 혼다, 닛산 등 주요 자동차 메이커 디자인 관련 분야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나서 심도 있게 평가 했다.

파이널리스트에 오른 학생들은 입을 모아 "이번 공모전 주제에 적합한 콘셉트를 설정한 것이 주효한 것 같다"며 "세계적인 공모전에 같은 학과 친구들 3명이 동시에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더 기쁘다"는 소감을 전했다.

한편 동아대 산업디자인학과는 2012년 6월과 8월,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인 레드닷 디자인 공모전과 IDEA에서 본상을 수상했으며, 미쉐린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결승에 오르는 등 국제디자인 공모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암벽과 하나가 된
나는 클라이머다!
오르고 또 올라
세계무대에 당당히 도전한다

채성준 선수(체육학과 2학년)



구름을 뚫고 해발 8,850미터까지 솟아있는 에베레스트는 오랫동안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는 미개척지였다. 영국의 등반가 '조지 말로리(George Mallory)'의 도전이 있기 전까지는, "Because it is There(그 산이 거기 있기 때문)"라는 그의 말은 세상의 모든 도전하는 모든 이들에게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 주었다. 높이 12m, 길이 15m, 90도 이상의 가파른 경사도의 인공암벽을 매일 오르며 새로운 도전을 향해 탐금질하고 있는 채성준 선수 역시 "도전은 늘 가슴 뛰는 즐거움을 안겨준다"고 당당히 말한다.

채성준 선수는 지난해 인천에서 열린 제94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새로 채택된 스포츠클라이밍 스피드 종목에 출전했다. 스포츠클라이밍은 산악 등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암벽 등반을 인공 시설물을 이용하여 즐기는 스포츠다. 대회는 리드, 볼더링, 스피드 등 3개의 개별 종목으로 치러진다. 리드는 로프를 이용해 안전을 확보하며 인공암벽을 오르는 경기고, 볼더링은 이와 달리 5m 내외의 낮은 벽에서 벨트 착용 없이 맨몸으

로 4~5개의 루트를 완등하는 방식이다. 스피드는 15m 높이의 벽을 빠르게 오르는 속도 경기다. 모든 종목이 암벽을 오르는 것이라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움직임이나 쓰는 근육, 근지구력 등이 달라 일반적으로 선수들은 한 종목에 집중한다. 채성준 선수는 속도를 겨루는 스피드 종목에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따며 동아대학교를 빛냈다. 2위와의 격차도 2초 정도, 그야말로 압도적인 승리였다.

채성준 선수는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부모님의 권유로 스포츠클라이밍을 시작했다. 연습할 때마다 더 높은 코스, 더 어려운 코스를 오를 수 있다는 것이 즐거웠다고 한다. "감자인, 민형빈 선수 등 우리나라 선수들이 리드나 볼더링 부문에서 꽤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했고, 남들이 잘 하지 않는 스피드 종목에 도전했던 거죠." 그의 선택은 탁월했다. 늦게 시작했던 만큼 손가락의 지문이 다 닳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훈련했고, 누구보다 더 즐겁게 인공암벽을 올랐다. 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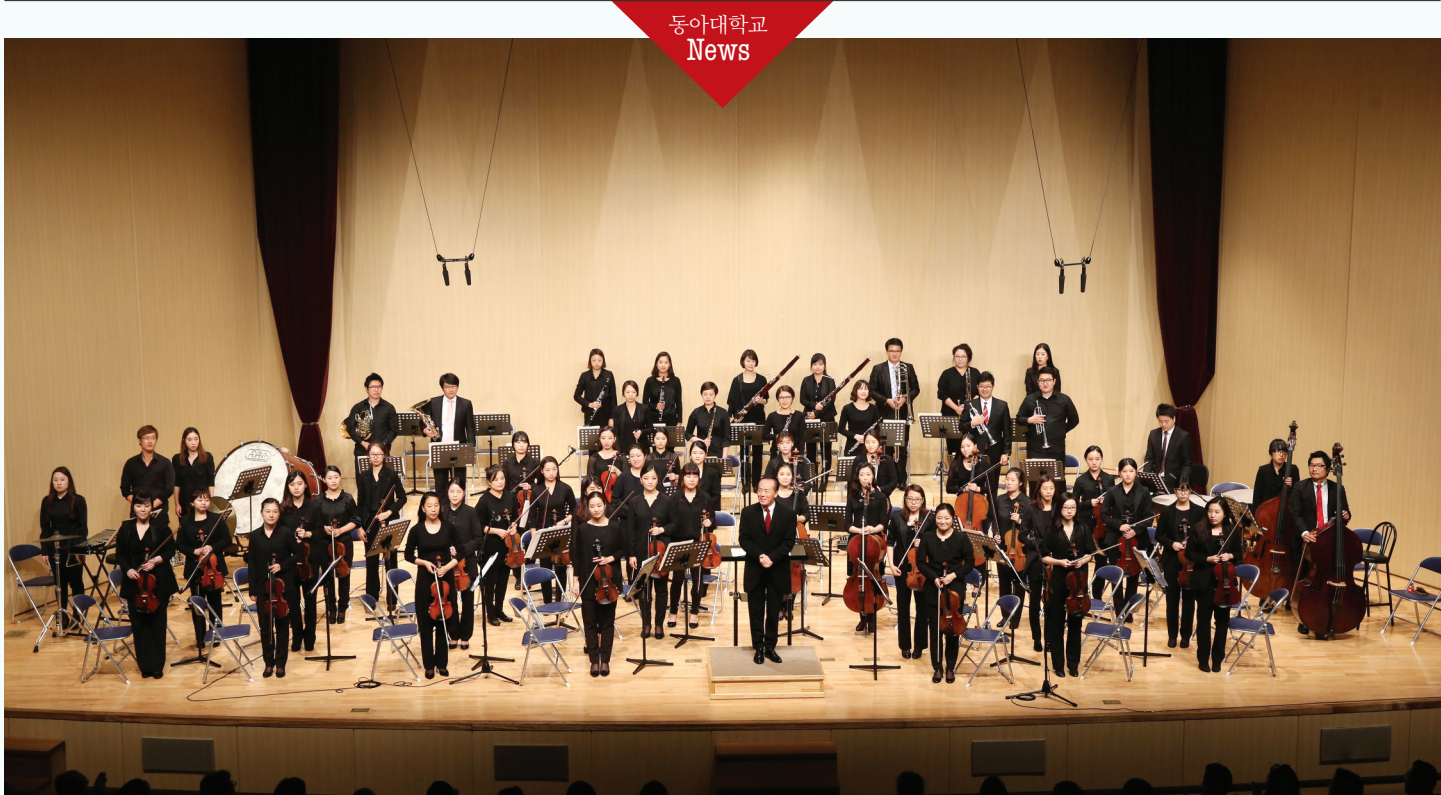
결과 그는 스피드 분야에서는 국내에서 독보적인 존재가 되었다. 각종 대회를 휩쓸며 국내에서는 경쟁자가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위기는 있었다. 훈련파트너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훈련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손가락 인대를 다쳐 월드컵에도 출전하지 못하게 됐다. "스포츠클라이밍은 노력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저 역시 지난해 부단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씩 찾아오는 슬럼프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암벽을 오를 때마다 찾아오는 즐거움, 그리고 해냈을 때의 벅찬 감동, 그것이 저를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채성준 선수는 오는 5월 유럽에서 시작되는 월드컵을 향해 탐금질을 하고 있다. 현재 세계랭킹은 33위. 다른 선수와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말하는 채성준 선수. 비록 높은 세계의 벽이 가로막고 있지만 그의 도전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강호진 작가 (철학과, 96학번)

하루 평균 620만 명, 월 평균 1천700만 명이 보고 있는 네이버 웹툰, 이 곳의 웹툰 작가인 강호진 작가는 2007년 네이버 웹툰 '호랭총각'으로 데뷔한 이래 매주 새로운 스토리로 사이버 공간의 독자들과 만나고 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호랭총각은 퓨전혼합장르의 장편 만화로, 최근 유행하는 인터넷 유머와 패러디, 풍자 등을 통해 재미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집안의 반대로 철학과에 진학해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던 만화가를 포기할 뻔했지만 대학시절 미술학원을 찾아다니면서 다시금 작가를 꿈꿔왔다는 강 작가. 그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되어 신바람 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동아대학교의 개교 67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번 음악회는 소프라노 김현숙(음악학) 교수와 테너 허동권(음악학) 교수, 바이올리니스트 이문경 등 동아대 동문 오케스트라와 유라시안 오케스트라가 출연했다.

동아대,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지휘자 금난새 초청 해설 음악회’ 열어

지난해 10월 31일 부민캠퍼스 다우홀에서 개최
개교 제67주년 기념…부산시민 800여 명에 가을밤의 낭만 선사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는 지난해 10월 31일 부민캠퍼스 국제관 다우홀에서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지휘자 금난새 초청 해설 음악회’를 개최했다. 동아대학교 개교 제67주년을 기념하고자 마련된 이번 음악회에는 부산시민 800여 명이 함께했으며, 마에스트로 금난새의 지휘 아래 유라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동아대 동문 오케스트라 50명이 참여해 가을밤의 낭만을 선사했다. 이날에는 금난새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로시니의 서곡 ‘세빌리아의 이발사’와 비제의 ‘카르멘’ 전주곡, 비발디의 ‘사계’ 등 다양한 클래식을 선보였다. 한편, 지휘자 금난새는 1977년 ‘제5회 카리안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지휘자로 데뷔,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카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향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1998년에는 유라시안 필하모닉을 창단,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학생들이 부산 광안리에서 하계 교육역량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양레포츠 체험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 석당인재학부, 로스쿨 지원자 7명 전원 합격

지난해 11월 재학생 이혜민 양 행정고시 합격
지역인재 육성에 앞장…수도권 인재 유출 막아

동아대학교 석당인재학부가 올 2월 첫 졸업자를 배출한 가운데, 이들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한 7명이 전원 합격하는 영광을 누렸다. 대한민국 전체 대학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대학은 지역인재들의 수도권 선호 경향과 지방대학의 특성화 부족, 재정적 한계로 위기에 빠져 있다. 이에 동아대학교는 지역인재를 육성하고,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을 막고자 지난 2009년 6월 독립학부 형태의 석당인재학부를 설립했다. 이듬해 3월 첫 신입생을 받은 석당인재학부는 설립자인故 석당 정재환 선생의 교육이념(자유진리정의를 바탕으로 차세대 리더들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석당인재학부는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 및 전용 학습공간 제공 ▲연간 480만 원 교재비 지원 ▲해외어학연수 기회부여 ▲동아대 일반대학원 진학 시 수업료 4학기 면제(입학금 포함) 등 파격적인 교육지원 시스템으로 학생들이 직접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한 로스쿨과 국가고시 등 트랙별 전공 과정을 통해 학생이 원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석당인재학부 제1기 졸업생 안경찬 군(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수석 합격)은

“석당인재학부에 대한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 덕분에 마음 놓고 공부에 매진할 수 있었고 이에 좋은 결과를 얻었다”며, “대학시절을 석당인재학부와 함께 할 수 있어 큰 행운이었다”고 말했다. 석당인재학부에 재학 중인 이혜민(제57회 5급(행정)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 양은 “학교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지금의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며, “석당인재학부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남은 대학생활을 더욱 알차게 보내고 싶다”고 밝혔다. 석당인재학부장 이동규 교수는 “석당인재학부 학생들의 공공정책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술대회 발표와 논문 게재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로스쿨 진학 및 국가고시 합격, 그리고 공인회계사 합격에 동기를 부여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고 전했다. 한편, 석당인재학부는 조무제 前 대법관과 박관용 前 국회의장, 그리고 전·현직 장관 등 정계와 재계, 법조계 등에서 한국 현대사를 이끌어 온 수많은 동량을 배출한 동아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차별화된 교육환경과 맞춤형 교과과정으로 지방대학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국제교류관(가칭) 기공식이 13일 오후 3시 부민캠퍼스 인근 국제교류관 신축부지에서 열렸다. 이날 기공식에 참석한 권오창 총장(왼쪽에서 일곱번째)과 관계자들이 시삽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아대 국제교류관 건립 ‘첫 삽’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2015년 2월 준공
유학생 기숙사, 한국어 강의실, 문화체험 시설 등 갖춰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부민캠퍼스 인근 국제교류관(가칭) 신축부지에서 기공식을 가졌다. 이날에는 권오창 총장과 박국제 서구청장, 방정향 동아학숙 이사장, 송한식 국제교류원장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권오창 총장은 인사말에서 “동아대학교는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국제교류관 건립을 통해 세계의 명문 사학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외국인 유학생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생활하며, 한국의 발전된 문화를 접하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박국제 서구청장은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황을 이룬 오늘 기공식을 통해 국제교류관에 대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느낄 수 있었다”며, “앞으로 동아대학교가 부산과 세계를 대표하는 글로벌 대학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건립될 국제교류관은 사업비 총 81억 원이 투입되며, 201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건물은 건축면적 490.07㎡(약 148평), 총면적 5,419.79㎡(약 1,639평)로 260여 명 수용 규모의 유학생 기숙사가 들어서며 한국어 강의실과 문화체험실, 카페테리아 등의 편의시설도 갖출 계획이다.

지난해 6월 동아대는 부민캠퍼스 내 국제관을 신축하여 ‘부산국제건축디자인워크숍’과 ‘석당학술원 국제학술대회’ 등 국제행사를 꾸준히 개최하고 있다. 이어 건립될 국제교류관은 외국인 유학생들의 주거와 교육, 문화교류 등을 원스톱(One-Stop)으로 제공하면서 전 세계 25개국 167개 기관과 운영하고 있는 동아대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내실을 기하게 됐다. 송한식 국제교류원장은 “국제교류관은 도심 주변에 위치해 접근성이 좋은 것은 물론, 학생 중심의 기능을 갖추고 있다”며 “앞으로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와 국제 교류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권오창 동아대 총장(왼쪽) 류길재 통일부 장관(오른쪽)

통일부 지정 통일교육센터, 동아대 유치

부산지역 각 기관 및 주민 대상
통일 교육 전반 담당
통일부, 연간 약1억 2천만 원
예산 지원 예정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가 통일부 지정 부산지역 통일교육센터를 유치해 올해 3월부터 운영하게 된다. 이에 동아대는 통일 교육 관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와 부산지역 각 기관 및 주민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 전반을 담당해 올바른 안보 의식 함양을 위한 통일교육에 앞장선다. 센터는 부민캠퍼스에 위치하게 되며, 통일부로부터 연간 약 1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 받을 예정이다. 한편, 부산지역 통일교육센터장을 맡게 된 권오창 총장은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부산광역시 협의회장직도 겸직하게 된다.

부·울·경·제주지역대학교 총장 협의회, 동아대서 열려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및 지방대학 육성 방안 등 논의
서남수 교육부 장관 참석…동아대, 부산대 등 21개 대학교 참여



서남수 교육부 장관(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과 동아대 권오창 총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부산대 김기섭 총장(앞줄 왼쪽에서 여섯 번째) 등 21개 대학교 총장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4시 부민캠퍼스 국제관에서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 총장 협의회’가 열렸다. 이날은 서남수 교육부장관과 교육부 관계자들을 비롯해 동아대 권오창 총장, 부산대 김기섭 총장, 부경대 김영섭 총장 등 21개 대학교 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협의회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 방안’과 ‘지방대학 육성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부산·울산·경남·제주지역대학교 총장 협의회(회장 김기섭·부산대 총장)는 지난 1988년 7월 지방대학 발전을 위해 창립됐으며, 현재 27개 대학교가 회원교로 참여하고 있다.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 국제관

동아대, 한국대학평가원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부·울·경 지역 유일 모범사례로 선정…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
대학교육에 대한 질 보장 및 사회적
공신력 부여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가 한국대학교육협회의 한국대학평가원(원장 서민원)에서 실시한 ‘2013년 대학기관평가인증’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대학평가원에서 실시한 ‘대학기관평가인증’은 지난 2011년에 처음 시행돼, 대학교육에 대한 질을 보장하고 사회적 공신력을 부여하고자 도입되었다. 서면평가와 현지방문평가 등으로 이뤄진 이번 평가에서 동아대는 6개 평가영역(▲대학사명 및 발전계획 ▲교육 ▲대학구성원 ▲교육시설 ▲대학재정 및 경영 ▲사회봉사) 54개 평가준거 모두 ‘충족’을 받았다. 특히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동아대가 ‘진로지도 및 취업상담’으로 모범사례에 선정됐다. 동아대는 졸업생 선배들이 후배교육에 참여하는 ‘순환구조식 후배교육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 상적인 취업교육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대학기관평가인증 결과는 내년부터 정부의 행·재정 지원 사업과 연계돼 다양한 측면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동아대의료원, 미래지향적 통합의료정보시스템 ‘DREAM’ 오픈

동남권 최상의 디지털병원 실현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동아대의료원이 웹기반의 OCS(처방전달시스템), EMR(전자 의무기록시스템), CRM(고객관리시스템), CDSS(진료의 사결정지원시스템), CP(임상진료지침), DW(데이터웨어 하우스), CDS(의료장비인터페이스 시스템), HIS(병원정보 시스템)등 병원 모든 전산 체계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일명 ‘DREAM’)을 오픈,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가동했다.

‘DREAM’의 가동으로 동아대병원은 환자중심의 진료시스템 구축, 진료기록의 신뢰도 향상, 환자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정보의 데이터화로 의료기술의 발전 기반 구축, 데이터 임상연구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통합전자 의무기록 도입으로 진료를 위한 정확하고 안전한 의료정보를 적시에 제공하여 의료진이 보다 빠르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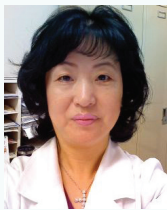
또한 환자관리, 진료정보, 처방데이터 등 의료정보를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정보를 통합함으로써 진료예약관리, 상담 및 문의관리, 사후 검진관리, 협력병원관리, 원무 및 진료지원시스템 강화, 임상정보 및 의료영상관리 등에 있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졌다.

아울러 기존 별도로 운영되던 다양한 업무시스템들로 인해 다른 시스템에 접근 할 때마다 로그인을 시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크게 개선해 모든 시스템에 접속 할 수 있는 보다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

김상범 의료장은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미래 지향적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DREAM’을 구축함으로써 21세기형 최첨단 디지털병원의 위상을 확립하게 됐으며, 동남권역 최상의 디지털 허브 병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동아대의료원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DREAM’은 2012년 2월 현대오토에버(주)를 구축사업자로 선정, 2년 여 개발기간과 150여 억 원이 소요된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진단검사의학과장 한진영 교수,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54차 학술대회 우수논문상 및 우수연제상 수상



동아대학교의료원 진단검사의학과 과장 한진영 교수는 지난해 10월24일부터 25일까지 대구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제54차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상과 우수연제상을 수상했다.

우수논문상 – Evaluation of the Clinical Performance of an Automated Procalcitonin Assay for the Quantitative Detection of Bloodstream Infection (국문번역 : 혈류감염의 정량적분석을 위한 프로칼시토닌의 임상적 의의)

우수연제상 – Standardization of microparticle enumeration across different flow cytometry platforms : experience of participating the first stage of ISTH SSC Vascular Biology Workshop3 (국문번역 : 국제혈전지혈학회 사업참여를 통한 미세입자 분석의 표준화)

동아대의료원 산부인과 한명석 교수팀

대표적 여성질환인 자궁근종 핵심원인 밝혀 수술의 새 치료법 가능



자궁근종은 여성에게 흔히 발견되는 질환으로, 35세 이상 여성의 40~50%가 겪고 있다. 자궁근종은 월경과다, 골반통증, 월경통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데 질병발생 정도에 비해 원인규명과 치료방법은 학계에서도 많은 연구를 필요로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자궁근종에 대한 원인 및 새로운 치료방법의 가능성을 발견한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되고 있다. 동아대병원 산부인과 한명석 교수팀은 최근 자궁근종 성장에 있어서 염증 반응이 어떻게 관여하는지 규명하는 연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자궁근종의 성장에는 염증 반응이 관여하고 있고, COX-2 억제제가 자궁근종의 성장을 억제하는 기전을 밝혀, 그동안 수술에 의존하던 자궁근종 치료법이 비호르몬성 약물 치료로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한 성과를 거두게 됐다.

이 연구는 제99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하며 학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인정을 받고 있다.

한명석 교수는 “자궁은 매달 반복되는 생리로 인해 염증 반응을 겪게 되는데, 염증의 세포학적 반응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며 “자궁근종 외 자궁내막증이나 자궁선근증의 병인에 대한 염증 반응 기여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동아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내의 생식의학연구실에서 진행된 것으로 한 교수를 중심으로 여성의 생식기관에 발생하는 여러 질환들, 즉,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악성 부인과 종양 등의 병인 및 병리 특징에 대한 분자학적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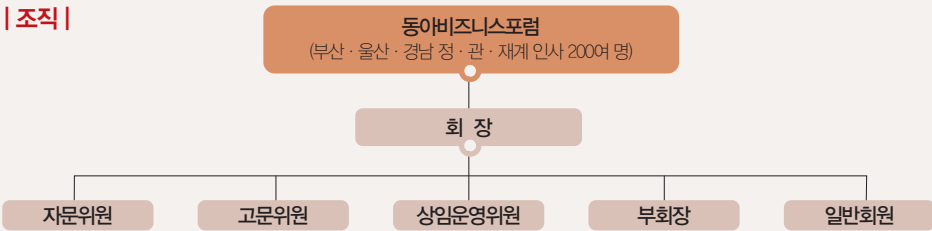


Dong-A Business Forum
사람, 기술, 경영을 위한
비즈니스 네트워크

동아비즈니스포럼

동아비즈니스포럼은 동아대학교와 인연이 있는 기업인을 대상으로 기업경영과 경제에 관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함으로써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이익을 도모한다는 대의를 가지고 출범했다.

| 조직 |



| 정기포럼 |

홀수 달 세 번째 목요일에 정기포럼을 개최

| 연회비 |

- | | |
|-----------------------|-------------------------------------|
| • 상임운영위원 : 3,000,000원 | • 입금계좌 : 101-2006-0421-05 (부산은행) |
| • 부회장 : 1,000,000원 | • 예금주 : 동아비즈니스포럼 노충현 |
| • 일반회원 : 300,000원 | • 문의 : 동아비즈니스포럼 사무소 (☎051-200-6066) |

| 연혁 |

- | | |
|---|---|
| 2011. 01. 13 동아비즈니스포럼 창립 대회 | 2013. 01. 24 『2013 동아비즈니스포럼 연감』 발간 |
| 03. 17 제1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01. 24 2013 정기총회 및 제12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05. 01 『동아 경제인 연감』 발간 | 03. 21 제13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05. 24 제2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03. 22 동아비즈니스포럼 뉴스레터 1호 발행 |
| 07. 14 제3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05. 15 동아비즈니스포럼 뉴스레터 2호 발행 |
| 09. 22 제4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05. 16 제14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11. 17 제5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05. 29 제1회 동아비즈니스포럼 회원 친선 골프대회 |
| | 07. 18 제15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 09. 11 동아비즈니스포럼 뉴스레터 3호 발행 |
| 2012. 01. 19 『2012 동아비즈니스포럼 연감』 발간 | 09. 26 제16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01. 19 2012 정기총회 및 제6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10. 26 동아비즈니스포럼 대표배 골프대회 |
| 03. 16 제7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11. 21 제17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05. 16 제8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 07. 02 『산학협력전문인력DB』 발간 | 2014. 01. 16 『2014 동아비즈니스포럼 연감』 발간 |
| 07. 19 제9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01. 16 2014 정기총회 및 제18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09. 20 제10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 10. 05 상임운영위원장 친선 골프대회 | |
| 11. 22 제11회 동아비즈니스포럼 | |



후원의 집 안내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이란?

동아대학교의 발전과 학생 복지 향상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의 발전기금을 후원해주는 모범업소를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으로 선정합니다.

• 가입대상

동아대학교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원하는 모든 업소 및 사업체

• 가입방법

-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에 우편 또는 FAX (051-200-6015)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주위에 후원의 집을 희망하는 업체를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로 추천해주시면 직접 방문해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 가입시 혜택

-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 명판 부착
- 후원금에 대하여 세금감면용 기부 영수증 발급
- 동아대학교 총장 명의 감사 난 발송
- 교내외 각종 행사 안내 및 초대권 발송
- 명절 때 쌀 · 감 등 소정의 기념품 발송
- 매년 동아대학교 달력 및 수첩 발송
- 본교에서 발행하는 각종 소식지 및 동아대학보에 지속적으로 소개
- 본교 발전기금 홈페이지 '동아대학교 후원의 집'에 등재 관리
- 교직원, 학생, 동문 및 교내 행사 때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후원의 집에서 실시하는 각종 이벤트를 본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전 교직원 메일 발송
- 특별한 행사 등 기사거리가 있을 경우 언론매체에 보도자료 배포

• 가입문의

Tel : (051)200-6012-3

Fax : (051)200-6015

Homepage : <http://fund.donga.ac.kr>

주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

| 신규 후원의 집 안내 | 2013. 10 ~ 2014. 01



130호점 제일돌곱창

이곳은 35년 전통의 제일돌곱창 본점입니다. 양곱창구이와 돌곱창 전골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산 한우사골로 정성껏 우려낸 육수의 진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35번길 4 (구룡성 하단점 옆)
연락처	051-202-1137
영업시간	10:30~23:00 (연중무휴)
주메뉴	돌곱창전골 1인분 8,000원 / 양곱창구이 1인분 13,000원 / 양념구이 1인분 13,000원



132호점 두발네발

두발네발은 정통 청동오리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의 인기요리는 오리생구이로, 쫄깃하고 부드러운 껍질의 맛은 일품입니다. 몸에 좋은 한약재가 듬뿍 들어간 오리백숙도 강력추천. 두발네발에서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과천로43번길 22 (하단역 12번 출구 당리사장 방향 100m)
연락처	051-202-5324
영업시간	10:00~22:00 (1째 주 일요일 휴무)
주메뉴	오리 생구이 1마리 30,000원 / 참숯오리백숙 1마리 40,000원 / 뽕삼계탕 13,000원



134호점 봉수대숯갈비

봉수대숯갈비는 가정집의 아늑한 분위기에서 최상급 불고기를 드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2방마다 좌식으로 돼 있으며, 자연 풍경을 보면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깔끔한 맛, 조용한 분위기로 인해 상견례 장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다대동로 72-2 (다대동 다대1차민센터 옆)
연락처	051-261-0635
영업시간	11:00~22:00 (연중무휴)
주메뉴	한우소금구이 22,000원 / 지리산 흑돼지 오겹살 12,000원 / 삼겹살 9,000원



131호점 투샘플레이스 동아대점

투샘플레이스에서만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의 디저트와 깊은 풍미를 자랑하는 전통 유럽의 딥로스팅(Dep-Roasting) 커피의 조화는 일상 속에서 누리는 달콤한 즐거움이 될 것 입니다.

주 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34 (구룡성 하단점 맞은편)
연락처	051-202-4595
영업시간	08:00~24:00 (연중무휴)
주메뉴	아메리카노 4,100원 / 카페라떼 4,400원 / 플레이팅 티 라미수 5,000원 / 뉴욕치즈케의 피스 5,500원



133호점 마리톤집

마리톤집은 60년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는 해물부침 전문점입니다. 이곳의 대표메뉴는 마리톤으로, 각종 해산물과 싱싱한 야채가 듬뿍 들어가 있으며, 고소하고 담백한 맛을 자랑합니다. 해물부침 외에도 빈대떡, 어묵 등 다양한 음식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784번길 54 (서면 롯데백화점 후문에서 메가박스 방향 50m)
연락처	051-806-5914
영업시간	16:00~02:00 (1, 3째 주 일요일 휴무)
주메뉴	마리톤 13,000원 / 빈대떡 3장 12,000원 / 어묵 15,000원



135호점 현대자동차 블루한즈 엠곰점

이곳은 현대 · 기아자동차 지정 공식 자동차 정비 센터로서 자동차 점검과 소모품 교체, 판금 및 도장 작업 등의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블루한즈의 전 직원은 신속, 정확, 친절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동아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들에게는 특별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 소	부산 사상구 엠곰점 1번지 (롯데마트 사상점 맞은편)
연락처	051-328-7773
영업시간	평일 08:30~19:00 / 토요일 08:30~17:00 (일요일 휴무)

일식요리의 명가, 동경초밥 동아를 후원하는 든든한 이름, 그곳을 ‘맛보다’

주소 |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21번길 21



- 01 동경초밥 입구. 건물 주차장 쪽을 이용해서도 출입이 가능하다.
- 02, 03 메인요리 위에 얹어진 금가루가 입맛을 더욱 돋궂준다.
- 04 동경초밥 박종환 대표
- 05 새우, 맛살, 나물 등 색상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튀김메뉴



일식 본연의 맛을 살린 곳, 맛집 동경초밥을 찾다

한 자리에서 30년째 맛과 정성을 한결같이 전하는 곳이 있다. 서구 구덕로 321번길에 자리한 '동경초밥'은 동아대학교의 가장 든든한 후원의 집이자 부산에서 손꼽히는 일식요리 맛집으로 그 명성이 자자하다.

동경초밥 박종환 대표는 전문 요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984년 동경초밥 간판을 내걸었다. 근처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와 구덕캠퍼스는 물론이고 승학캠퍼스에서도 많은 교직원과 학생들이 찾은 정도로 이곳의 입소문은 이미 캠퍼스 내에서도 유명하다.



싱싱한 횡감을 맛 좋게, 그리고 보기 좋게 담아 시각적인 아름다움까지 맛볼 수 있도록 동경초밥 요리사들은 손끝에 정성을 가득 담아 초밥을 만들고 횡감을 뜬다. 일본풍의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꾸며진 복도 끝을 따라가면 요리사들의 조리 과정을 볼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조리과정을 오픈했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지는 구조다. 2개의 홀 테이블 외에는 모두 방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인테리어 되었다. 소중한 이들과 오붓하게 식사를 즐길 수 있도록 한 배려가 느껴진다.

안심수산물인증업소, 서구모범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동경초밥은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풍기는 곳이지만 그렇다고 부담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다. 이곳에서는 근처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학생들과 인근의 젊은 직장인들을 위한 점심특선 메뉴도 선보이고 있는데 1인분 기준 점심특선 20,000원, 초밥, 매운탕, 생선구이, 화비빔밥은 각각 15,000원에 만날 수 있다.

코스요리를 주문할 경우 기본적인 메뉴로 메밀국수, 복어껍질 냉채, 배춧등 등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음식이 나오며, 메인요리에서는 고래, 오징어, 문어, 전복 등 갖가지 신선한 횡감의 날 것 그대로의 맛을 음미할 수 있다. '최상의 싱싱한 재료로 최고의 음식을 만들자'는 동경초밥의 가치는 요리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은 모습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비릿한 향을 풍겨서 조리하기에 까다롭다는 고등어회도 동경초밥에서는 비린내를 최대한 줄이고 회 두께를 두툼하게 만들어 고등어회의 참맛을 풍부하게 느낄 수 있도록 조리했다. 사선으로 잘라 얇한 속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재찜 역시 동경초밥이 자랑하는 요리 중 하나. 잘 익은 속은 전용스푼을 이용해 쉽게 먹을 수 있다. 새우, 맛살, 나물 등에 얇게 튀김옷을 입혀 삼색의 조화가 잘 어우러지게 만든 튀김 메뉴도 추천한다. 코스요리를 주문할 경우 이 모든 요리들을 차례대로 만날 수 있다.

발전기금 기부스토리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 발전기금 6천만 원 전달 지난 16년간 모교에 발전기금 4억여 원 쾌척...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 통해 후학 양성에도 앞장서...



박순호 세정그룹 회장이 최근 모교인 동아대학교(총장 권오창)의 발전과 후학 양성을 위해 발전기금 6천만 원을 쾌척했다.

지난 1998년 동아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1998년 명예경영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박 회장은, 1998년 본교 특성화사업단 지원금 1억 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4억여 원의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사회복지법인 세정나눔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박 회장은 매년 3천만 원의 장학금을 동아대 학생들에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기탁한 발전기금의 일부분 역시 장학금으로 사용됐다.

박 회장은 “매년 장학금을 전달하면서 기부가 아니라 학생들과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고 생각한다”며, “작은 도움이나마 후배들이 학업에 더욱 열중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 또한 앞으로 지역 사회를 대표하는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고 밝혔다.

동아대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7기 원우회, 발전기금 3천만 원 쾌척

권 총장 “지속적인 관심에 감사...대학 발전을 통해 성원에 보답할 것”
지난해 12월 12일 승학캠퍼스 총장실서 발전기금 전달



동아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AMP) 47기 원우회가 지난해 12월 12일 발전기금 3천만 원을 쾌척했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7기 김성만(동보하이켄㈜ 대표이사) 원우회장은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하며 “그간 최고경영자과정을 통해 동문간의 교류 및 체계적인 경영 이론을 익힐 수 있어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동아대학교가 명문 사립대학으로 더욱 발전하는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오창 총장은 “경제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는 동문 덕분에 많은 힘이 되고 있다”며 “보내 주신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와 노력으로 대학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동아대 권오창 총장을 비롯해 이동대 경영대학원장과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7기 원우회 김성만(동보하이켄㈜ 대표이사) 회장, 선종민(선종민세무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정도만(우주문화사㈜코스모디자인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최근 프로야구팀에 입단한 최영환(한화이글스 투수)·안승한(KT위즈 포수)·김광영(넥센히어로즈 외야수) 선수가 모교인 동아대학교에 발전기금을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0일 오전 9시 30분 안 선수와 김 선수가 구덕야구장에서 열린 '제1회 총장기 야구대회'를 찾아 발전기금 3천3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에는 훈련으로 불참한 최 선수를 대신해 부모님이 자리했다.

안 선수는 “졸업을 앞두고 좋은 소식을 들려줄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4년 동안 받은 사랑을 조금이나마 표하고 싶었다. 적은 금액이지만 후배들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한 동아대 한석정 부총장은 “선수들이 좋은 결과를 통해 모교의 명예를 드높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발전기금까지 전달해줘 정말 고맙다”며, “앞으로 더욱 정진해 대한민국 야구사에 전설로 남을 훌륭한 선수들로 성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1회 총장기 야구대회'는 지난해 5월 모교발전과 야구의 저변 확대를 위해 기금을 전달한 롯데디자인즈 신본기 선수의 뜻에 따라 개최하게 됐다.

동아대학교 씨름부 최성환(체육학과 3)·김성용(체육학과 3) 선수가 'BK기업은행 2013 추석씨름장사' 대회에서 받은 상금 일부를 모교에 발전기금으로 전달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8일 오전 10시 30분 최 선수와 김 선수가 송미현 감독과 함께 동아대 승학캠퍼스 총장실을 방문, 각각 5백만 원과 2백만 원을 학교 발전기금으로 써달라며 권오창 총장에게 전달했다.

최 선수는 “동아대의 아낌없는 응원과 송미현 감독님의 헌신적인 지도로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다”며, “이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지난 씨름대회에서 받은 상금의 일부를 기부하게 됐다. 항상 동아인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선수는 “저 역시 동아인의 응원과 감독님의 지도 덕분에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다”며, “지난 씨름대회 결승전에서 아쉽게 저 1품에 올랐지만 오는 전국체전에서는 더 좋은 성적을 거둬 동아대를 더욱 알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권 총장은 “최성환 선수와 김성용 선수가 지난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둬 우리 동아인 모두에게 자랑이 됐다”며,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운데 이렇게 학교를 위해 기부까지 해줘서 정말 고맙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최성환·김성용 선수는 지난해 9월 'BK기업은행 2013 추석씨름장사' 대회에서 각각 한라장사(110kg 이하)와 태백 1품(80kg 이하)을 차지해 동아대 씨름부의 명성을 이었다. 특히 최성환 선수는 이만기 감독 이후 약 30년 만에 대학생 신분으로 한라장사에 올라 화제가 됐다.

동아대 최영환·안승한·김광영 선수, 발전기금 전달

'제1회 총장기 야구대회'서 3천3백만 원 기부
“4년 동안 받은 사랑...후배들에게 전하고파”



동아대 씨름부 최성환·김성용 선수, 모교에 발전기금 전달

“아낌없는 응원과 헌신적인 지도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파”
'BK기업은행 2013 추석씨름장사' 대회에서
받은 상금으로 발전기금 내



발간기금
납부자 명단

납입기간 2013. 9 ~ 2014. 1
(가나다순 정렬)

1억원이상

(주)더베이직하우스
이명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박순호
이명
주영도

1천만원이상 5천만원미만

(주)한승물류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47기
국민은행 고정동지점
김현호
대한불교 조계종 자운사
박은경
산업공학과(계약학과)
안승한
외과대학 외래교수협의회
정종두
최성환
최영주
최영환
한국가스공사
하재택

5백만원이상 1천만원미만

KT위즈
경영대학동문화
경영대학원최고경영자과정동문화
국어국문학과동문화
김광영
김기욱
김영준
김윤원
박혜정
외과대학 내과학교실
이규열
차성수
한진영

1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재)한국문물연구원
(주)대구시민프로축구단
(주)태영건설
강대성
강신준
강지연
고베이사히병원
곽경진
곽현
구중환
권오창
권철우
김대수
김백영

한국가이던스
한상봉
허승권
홍영기

5심만원이상 1백만원미만

(재단)양문물연구원
강무용
강신모아치과
강형숙
강희관
강경주
고향한우
구룡성
구신실
권한용
금화초밥
김경봉
김대환
김분숙
김상기
김수녕
김영근
김영근
김윤희
김은영
김정기
김진숙
김종필
김찬근
김태용
김택훈
콜림
니루터스당
대나무위에누르고
대후기획
동경초밥
동맹이삼겹살
대얼덜메디컬코리아(유)
미당집
미당집
메리퀸의원
미앤아이한의원
박광준
박동원
박애숙
박우준
박우찬
박정대
박진호
박철홍
밝은눈안과의원
방한철
배홍규
백경숙
백홍철
변재형
부동
무미초밥
상록광고기회
서종환
선우림
송미현
송유진
송희식
신동규
신민환
신재욱
신홍철
아름다움동서여행(주)
아이시티안과의원
안목련

주요부스	김정선	백인호
양기석	김정임	변지앤버리
양인봉	김정화	변성호
엄법섭	김종조	부산양곰창
여정희	김종훈	블랙아크하단점
오종진	김지석	삼송초밥
왕경애	김진수	서용권
우리집으로식당	김태수	서정창
우주문화사	김태관	서찬영
원동옥	김태철	서추연
윤해순	김학이	선미집
은동철	김현희	설광석
이기연	김현철	설남중
이상원	김해진	설상철
이상화	김해석	성낙용
이숙녀	김훈	성낙창
이영현	나은	성통자
이재민	나진숙	성세환
이정형	남경문	성일솔밭갈비
이창훈	남병균	성창섭
이현수	남정칠	소혜진
임선희	남찬섭	손성호
장세진	노춘근	손영수
장우일	노수정	손호근
장정원	노티나무식당	송강직
전언찬	다빈항	송계선
정경태	덕성원	송언경
정만희	동래식계탕	송윌티울
정성만	동아건축동문회	송수영
정성훈	동미미디어테크	송하식당
정영재	러쉬	송한식
정영호	류미향	송현숙
정우철	류태철	신귀자
정정남	맛잡이해물천지	신통옥
정종식	문덕희	신봉준
정하일	문성영	신상열
조동제	문영주	신소재공학과 제조공정 연구실
조희숙	문형인	신대갑
주현옥	박동식	신영규
지만수	박미녀	심원정
진아꽃집	박미란	아이유학원
진영주	박미점	안성호
차동희	박병권	양건석
차한수	박병형	양지화원
청주일식	박성갑	양행련
초원명가	박상근	여심초밥
초유플라워	박성택	에피소드인커피
최만석	박소미	엠마우스의료사회사업동조합
최미옥	박수근	염정국
최영호	박수진	염정홍
최정동	박승범	예향
최해대	박언주	오구환
최형림	박영수	오민홍
주동식	박영철	오성용
하상오	박은주	오윤표
하성호	박은희	오응수
한석정	박인수	오주성
한은혜	박인식	옥평석
함플러스병원	박인호	외갓집꼬리곰탕
허동윤	박재진	우동민
허일태	박제덕	유영현
허형지	박종승	윤경숙
홍금주	박준동	윤금주
황정희	박진수	윤금주
황진기	박진홍	윤상우
홍부가	박창열	윤상주
	박철홍	윤상욱
	박현우	윤은주
	박홍석	윤정환
	박홍준	윤종애
	박홍식	윤진호
	배동고	유훈용
	백성도	이경남

정기우	정대일	황규홍
이권희	정대주	황기식
이기영	정동근	황보기룡
이기철	정두화	황연수
이기회	정무섭	황형모
이동건	정민호	
이동주	정상희	
이동훈	정성식	
이두석	정원재	
이명경	정은우	(주)누마종합건설
이무연	정지분	(주)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이미경	정진웅	강금주
이부영	정태일	강동일
이상원	정태훈	강민주
이상진	제일돌굴창	강석주
이상현	조규판	강선희
이상화	조미경	강성문
이선우	조부연	강수령
이선희	조석호	강운석
이선희	조영수	강은호
이성수	조원섭	강정호
이성훈	조용언	강종훈
이승희	조윤재	강지현
이신영	조재현	강초기근
이신자	조집제	강태욱
이영노	조해훈	강현성
이양현	차지훈	강현표
이영기	차충균	고경환
이영준	천시틀라워	고성환
이원희	천우JK스포츠	고상만
이은수	조원복국	고성원
이익선	최금옥	고애일
이인용	최병일	고영웅
이재열	최선동	고유석
이재욱	최성미	고정익
이재형	최상수	고희준
이점인	최영대	공미정
이점자	최용락	공해경
이정재	최우용	공희원
이준표	최임근	곽광우
이준희	최재성	곽미진
이진우	최재영	구강인
이장수	최정훈	구본근
이철오	최정희	권경민
이태주	최지혜	권기항
이학춘	최희선	권기호
이한성	카페베네동아대점	권명수
이현숙	카페베네부민점	권봉식
이효종	카톨릭스	권수진
이훈성	공시루	권수일
이희걸	타이어천국	권영준
이희원	통영장어구이	권오근
이희정	하광봉	권주영
임동락	하삼태	권치명
임미경	하형주	권태정
임영덕	한경희	권태호
임진호	한구석	권혁진
장덕	한덕희	권혜민
장덕	한성우	김주성
장병일	한정원	김경미
장성학	한정섭	김경미
장세훈	해월정갈비	김경옥
장연옥	해피플라워	김고은
전미라	해남인	김광조
전상화	하인범	김구연
전정순	하정	김구범
전찬권	하혜숙	김규한
전정환	한나나	김기수
전해숙	홍기섭	김기철
전효정	홍순구	김길조
정갑주	홍순권	김남규
정규식	홍재근	김남영
정기철	황경원	김나은

김대원	김예지	김예수	박상석
김대진	김완수	김항숙	박상석
김대현	김완중	김환이	박상영
김대환	김원석	김현	박상원
김덕모	김원근	김현규	박상철
김덕수	김유미	김현동	박상현
김덕현	김유진	김현수	박상현
김도협	김윤정	김현우	박석강
김도훈	김윤진	김현인	박석주
김동섭	김은송	김현정	박선자
김동역	김은주	김현창	박성범
김동욱	김은혜	김현준	박성봉
김만재	김익근	김현진	박성현
김명수	김익도	김형권	박세영
김명우	김인규	김형기	박소연
김문겸	김자형	김형석	박수현
김미경	김재민	김형훈	박수호
김미란	김재성	김예란	박수우
김민경	김재원	김혜숙	박영란
김민지	김재정	김혜창	박영숙
김민지	김재현	김호남	박영후
김범수	김정곤	김희경	박용섭
김병찬	김정미	김희신	박윤테
김병철	김정욱	김효준	박우진
김보길	김정일	김후녀	박운경
김보라	김정일	김희경	박은경
김보준	김정한	나형진	박인갑
김복선	김정화	남광호	박인규
김복균	김정희	남영구	박인숙
김부흥	김종균	남정돌	박일철
김삼남	김종술	남제진	박자영
김상민	김종식	노기호	박재균
김상봉	김종오	노상우	박재한
김상열	김주박	노승한	박정우
김상열	김주연	노영상	박정표
김상열	김주영	노준기	박종귀
김상현	김준영	노준석	박종민
김선익	김준찬	노경현	박종봉
김성동	김준희	두근스	박종선
김성부	김종완	류단비	박종수
김성욱	김지건	류상수	박종열
김성자	김지광	류석진	박종훈
김성진	김지상	류용주	박준형
김성태	김지숙	류윤아	박준홍
김세훈	김지연	류지희	박중언
김소연	김지현	류해옥	박지은
김소영	김진길	류현욱	박지해
김소은	김진산	문기주	박진억
김소형	김진수	문철주	박진영
김수영	김진욱	문환웅	박진철
김수정	김진웅	민병욱	박진호
김수진	김진주	민지홍	박진희
김순돌	김진혁	박강수	박차원
김순진	김진호	박경렬	박찬현
김시범	김진홍	박경만	박춘래
김이영	김진후	박경석	박한신
김양곤	김진희	박정우	박현경
김양기	김차희	박경윤	박현주
김영권	김창석	박경은	박현지
김영근	김창환	박경환	박형민
김영모	김태근	박관호	박형우
김영민	김태수	박기현	박형태
김영선	김태연	박기현	박해진
김영일	김태영	박닝클	박홍태
김영진	김태원	박동인	박화준
김영하	김태현	박동준	박환석
김영환	김태호	박동현	배길석
김영호	김태훈	박묘진	배도정
김예리	김태희	박이나	배명
김예분	김평준	박미향	배상희
		박미혜	배성완
		박명국	배성현
		박병규	배정심

배지영	신소영	윤성환	이신희	임상택	정태호	최영빈
배지은	신숙영	윤세련	이아희	임상호	정현호	최영익
배찬우	신승리	윤소라	이영규	임석준	정해선	최영진
배형우	신승욱	윤영준	이영미	임지아	정호광	최영진
백경원	신영교	윤원웅	이영민	임지현	제보애	최우석
백동원	신영미	윤은기	이영철	임철준	제화주	최은령
백동철	신인주	윤인식	이영태	임해인	조덕현	최익준
백영준	신정현	윤재홍	이영훈	임희숙	조명환	최인수
백성민	신준석	윤정은	이예니	장기덕	조문형	최인식
백영균	신중섭	윤준호	이윤석	장기철	조민철	최일규
백영기	신지	윤진화	이윤식	장말순	조상호	최장석
백정범	신하늘	윤찬수	이우현	장명남	조석봉	최재억
백중국	심명국	윤태영	이원호	장문석	조아람	최재호
변성민	심재후	윤필식	이원호	장선희	조윤미	최준호
변성현	심형열	윤필남	이윤원	장수영	조은상	최지섭
변재태	아이킴김혜소비자생활협동조합	윤해진	이윤호	장수진	조은실	최창윤
변해석	안경소	윤현우	이은인	장용성	조은희	최하나
사공경열	안영숙	윤혜영	이은총	장정환	조장우	최현권
서광민	안영주	이경배	이민승	장종문	조재영	최현중
서성국	안정화	이경석	이민중	장지혜	조지수	최혜민
서석준	안천근	이경열	이민현	장지환	조진욱	최호림
서성구	안태형	이경문	이민희	장하림	조항미	탁규만
서영기	안형수	이경훈	이정수	전광훈	조현	탁한주
서용진	안해림	이경호	이정욱	전기철	조현빈	표지현
서은숙	양상훈	이경희	이정호	전민영	조현상	표현민
서정우	양석동	이교은	이재동	전상경	조현석	하민공
서정욱	양신우	이광원	이재봉	전선위	조현석	하민호
서정윤	양원정	이광희	이재민	전성욱	조현준	하상수
서정택	양재호	이국환	이재은	전성웅	조형기	하상필
서정화	양정운	이규완	이재현	전세현	조홍률	하승태
서정희	양정임	이니현	이재홍	전은영	조홍준	하연주
서지성	양주순	이남경	이재훈	전재혁	조희지	하영민
서창인	염은미	이대근	이정민	전주금령	주문돈	하은희
서한수	여남화	이대성	이정훈	전주환	주영욱	하정훈
서화영	여인재	이덕근	이정훈	전지경	주인석	하창근
석광수	여주환	이도화	이종만	전혜영	주치돈	한성현
석수경	오상근	이동태	이종민	정강재	주형준	한지억
선민정	오세경	이동명	이종범	정경이	지강이	한승호
설경석	오승현	이동진	이종우	정경환	지상훈	한영미
설기근	오승환	이동하	이주영	정기욱	지환웅	한우만
설기록	오영훈	이동현	이주경	정기현	진예은	한인근
설병찬	오은미	이동환	이주헌	정남기	진윤희	한진섭
설수현	오인석	이미랑	이지나	장다혜	진일혁	한진정
설영건	오준석	이민원	이지연	정덕업	진재운	한정임
설창욱	오진환	이민호	이지원	정민규	진종길	하성우
손경환	오태경	이범수	이지혜	장민석	진창영	하영민
손계수	옥민	이병국	이진구	정민식	진태훈	하윤지
손민근	윤시향	이상권	이자의	정병기	차경천	하찬
손봉익	왕민	이상근	이진택	장상성	차동환	하창환
손성훈	왕승민	이상룡	이찬웅	장상찬	차병철	하한구
손승현	우연주	이상민	이창경	정서영	차윤석	한승웅
손연숙	우진희	이상범	이창우	장성규	차중문	한민아
손영주	우희석	이상수	이창훈	정성원	채정자	홍국현
손정우	원근영	이상연	이창훈	정세희	천범성	홍남식
손중윤	위순선	이상완	이찬배이오택	정수영	천지영	홍상원
손판개	우강규	이상천	이준하	정순계	최구진	홍서영
손판도	우경택	이상현	이중섭	정승봉	최규환	홍영섭
송대성	유미지	이상훈	이해주	장영석	최금찬	홍현두
송모란	유병철	이서윤	이현경	정영식	최대환	홍남웅
송미자	유슬아	이선아	이현경	정옥진	최민석	황동민
송민정	이선전	이선하	이현숙	장원경	최병근	황명권
송성훈	유웅식	이성민	이현희	정우리	최병욱	황병모
송은화	유재욱	이성민	이혜선	정은옥	최병진	황상규
송정량	이성호	이성훈	이혜숙	장윤정	최보훈	황영식
송지영	유재은	이성훈	이혜원	정은택	최봉환	황영식
송희은	윤갑식	이성훈	이호정	정재현	최상석	황영현
신경섭	이세라	이성훈	이홍재	정종철	최상윤	황영희
신경호	윤경민	이수민	이홍재	정종화	최상태	황원주
신기욱	윤경훈	이순박	이희정	정주기	최석열	황의경
신병준	이규돈	이승언	이희진	정준영	최석훈	황재용
신봉준	윤만희	이승엽	안정욱	정준환	최성문	황정환
신부삼	윤별	이승준	임병균	정진환	최성미	황주일
신상주	윤복규	이승형	임병찬	정찬식	최승환	황태규



보내는이

□□□-□□□

요금 수취인
후남부담
발송유효기간
2013. 1. 1 ~ 2014. 12. 31
부산사하우체국
제97호

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
동아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과 대외협력팀(본부 314호)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

*표시된 항목은 필수 입력 항목입니다.

약정인	* 성 명(기관명)				* 주민(사업)등록번호			
	* 연락처(휴대폰)				E-mail			
	관 계		☐ 동 문 ☐ 학부모 ☐ 재학생 ☐ 일반		■ 성명 :		■ 소속 :	
	주소	자택						
직장								
기부권유자			■ 성명 :		■ 소속 :			

※ 기입하신 개인정보는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과 각종 예우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합니다.
※ 선택 항목은 기입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나, 본교에서 제공하는 각종 예우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기부총액		일금		원정		☐ 현금 ☐ 기타()	
출연방법	일시납부 ☐	금 액	일금		원정		☐ 현금 ☐ 기타()
		■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 부산은행 : 029-01-027228-1 ☐ 국민은행 : 118201-04-168318 ☐ 농 협 : 944-17-004326 ☐ 우 체 국 : 600783-01-008731	
	분할납부 (CMS) ☐	금 액	일금		원정		☐ 현금 ☐ 기타()
		20 년 월 ~ 20 년 월 까지 회 분할납부					
		은행명 : 예금주 :		계좌번호 : 출 금 일 : ☐ 10일 ☐ 25일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가 없습니다.							
기부목적		☐ 학교에 위임 ☐ 목적기금 ()					

위와 같이 기부함을 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인 (인)

기금문의 |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 051)200-6060, 200-6012~3 http://fund.donga.ac.kr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동아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발전기금 기부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발전기금 기부와 관련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동아대학교 발전기금 약정서에 기입되는 모든 개인정보는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자 예우의 용도 등에 한하여 쓰이며, 이 외의 용도에 쓰일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 성명(기관명), 주민(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선택항목 : E-mail, 주소(자택/직장), 기부권유자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기부 약정 종료일까지 본교에서 보유하며, 본교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쓰이게 됩니다. 다만 기부자가 약정 해지를 요청하거나 자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시, 해당 개인정보는 재생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해 완전히 삭제되며, 어떠한 용도로도 열람 또는 이용 할 수 없도록 처리됩니다.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발전기금 기부 희망자는 개인정보(선택 항목)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본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기부자 예우 등)에 대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본교가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동아대학교는 발전기금 기부자의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별도로 두고, 더욱 안전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발전기금 서비스를 위한 본인 확인,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주민(사업자)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기부 약정 종료일까지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의 내용 발전기금 기부 희망자는 본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발전기금 기부 및 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본교가 상기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상기 내용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약정인 (인)



동아대학교가 대한민국 최고 명문사학으로 비상하기 위한
힘찬 날갯짓에 여러분의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용도

01

교육환경개선

좋은 면학분위기
(기숙사 건립/도서관 확충/
노후건물 리노베이션)
조성으로 학생들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하도록
하여 좋은 인재양성에
힘쓰겠습니다.

02

교원확충 및 학술연구활성화

21C 정보화 지식사회를
선도하며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해외석학 초빙,
우수 연구인력 양성,
학술연구활동 지원으로
교육과 연구력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도록 지원합니다.

03

특성화 및 특별프로그램 운영

차별화된 교육·연구지원으로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적극 대처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본교가 감정으로 가진
특정분야에 집중투자하여
지역대학을 선도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합니다.

04

장학금 지급

조성된 기금은 장학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생들이
경제력 문제로 인하여
학습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참여대상

동문, 교직원, 학부모, 재학생, 독지가, 기업체, 기관, 단체 등 동아를 사랑하는 어느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기부방법

기부내용 : 현금, 유가증권뿐만 아니라 부동산, 실험실습기자재 등 여러분의 정성이 담긴 어떠한 물품이라도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현금으로 기부하실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 무통장 입금 | 계좌로 직접 입금하시고 입금내역을 전화로 알려주시면 됩니다.
예금주 : 동아대학교(발전기금)
－ 부산은행 : 029-01-027228-1 － 농협중앙회 : 944-17-004326
－ 국민은행 : 118201-04-168318 － 우체국 : 600783-01-008731

• 방문납부 |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본부건물 3층 314호)로 내방해 직접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급여공제 | 교직원에 한하여 매월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CMS납부 | CMS(Cash Management Service)는 동아대학교가 금융결제원에 자동이체 출금을 의뢰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송금수수료가 없습니다.

약정신청

전화·방문 약정

전화를 주시거나 방문해 주시면 발전기금 약정과 납부에 대하여 안내해 드립니다.
• 대외협력과 TEL : 051) 200-6060, 6012~3

온라인 약정

발전기금 홈페이지(http://fund.donga.ac.kr)를 통해 편리하게 약정하실 수 있습니다.

팩스나 우편으로 약정

다운로드 받은 약정서를 기입하셔서 우편이나 팩스를 통해 보내주시면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 FAX : 051) 200-6015
• 주소 : (우)604-714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대외협력과(대학본부 3층 314호)